

보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6월 VOL. 353
JUNE 2020



봉의초등학교 등나무



소양강처녀 새단장하던 날(2020.4.28.~29.)

M E E T

봄내를 만나다

- 04 춘천은 지금 공지천 힐링 산책로
- 06 코로나19 Q&A
- 08 춘천시 청년청
- 10 소상공인 집중 지원
- 12 김유정문학촌
- 13 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 14 생활뉴스 춘천, 장벽없는 도시 탈바꿈 외 11건

04



H U G

봄내를 품다

- 18 김길소의 그때 그 사건 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 22 최돈선의 골목이야기 ⑥ 서부시장으로 가는 길
- 26 그 옛날 춘천 ⑥ 춘천역의 탄생

18



표지 설명 봉의초등학교 등나무 사진 이원일

여름이 왔건만 아직 물러나지 않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등나무 아래서 세상을 바라본다.

CONTENTS

2020년 6월

E N J O Y

봄내를 즐긴다

- 28 마을버스 타고 춘천 한 바퀴 ⑤ 동면1(감정리 · 상걸리)
- 30 명예시민기자가 만난 우리 이웃
12년 이어오는 따뜻한 장터국수 외 8건
- 39 봄내컬처

28



D R E A M

봄내를 꿈꾸다

- 44 백세시대 멋진 골드 ⑥ 손뜨개 인형작가 정을섭
- 46 너의 청춘을 응원해 ⑦ 청년농부 권수연
- 48 너의 꿈을 응원해 ⑧ 기자가 되고 싶어요
- 50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 52 봄내 기업을 찾아서 협동조합 판
- 54 봄내골 이런 가게 ⑥ 춘천일기
- 56 우리마을 별별공동체 ② 토박이공동체농장

56



S H A R E

봄내를 나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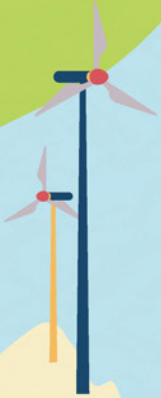
- 58 시민 곁에 한 걸음 더 ⑧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 60 의회소식 제29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 64 봄내골소식
- 66 알림마당
- 70 독자와 함께

58



춘천은 지금
공지천 힐링 산책로

중도



공지천교

1 공지천변을 산책하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물소리도 힐링, 바람 소리도 힐링, 발길을 멈추게 하는 들꽃도 힐링. 춘천에 사는 행복 이자 특권이다.



1

신성미소지움아파트

6 지금까지는 공지천을 한바퀴 돌고 싶어도 온 의동 롯데캐슬과 금호아파트 사이 구간의 산책로가 끊겨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제 호반교 위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 아이들도 어른들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됐다.



호반교

금호타운아파트

6

5

시민하천정원



롯데캐슬

KBS방송국

5 온의동 롯데캐슬과 금호아파트를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 사업이 곧 마무리된다. 공사 중인 산책로 구간을 먼저 달려봤다. 맞은편은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다. 이곳이 곧 시민하천 정원으로 조성된다는 반가운 소식.



다같이 돌아~ 공지천 한 바퀴

춘천시민의 대표적 산책로인 공지천에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퇴계천·후하천~공지천을 연결하는 힐링 순환산책로가 드디어 완공된 것. 강을 따라 걸으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공지천 산책로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 봤다.

글 김선순 촬영협조 이나래·박선우

2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강길을 산책할 수 있도록 제초작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지천변을 가꾸고 있다. 잡풀로 가려졌던 강폭이 넓어지고 수질도 맑아지고 있다.



3

거두리 성우오스타에서 버거킹 뒤로 후하천길이 조성됐다. 지금까지 성우오스타에서 공지천에 접근하려면 횡단보도 세 개를 건너야 했지만 후하천길 터널형 수로박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다.



4

퇴계동 홈플러스와 하이마트 사이에 퇴계천길이 조성됐다. 퇴계천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동굴같은 터널형 수로박스다. 수로박스 300m를 통과하면 바로 석사교 밑 공지천이 나온다.



춘천경찰서

공지교

호자교

일성아파트

남춘천교

퇴계교

퇴계주공 1·2단지

석사교

하이마트

거두교

거두부영아파트

신도브레뉴아파트

일러스트디자인 임윤선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 돼야 합니다”



이제 좀 가라앉았나 싶었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 사태로 다시 모두를 불안으로 내몬다. 잠시 방심하고 마스크를 벗었다가 뜨끔한 사람들이 많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글 이승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Q. 의료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A. 중국 및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초기 상황, 그리고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높은 사망률을 보이던 상황에서 더 나아가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의료계, 각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의 협력으로 큰 파도를 넘은 상태입니다만, 최근 며칠 사이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유행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Q.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 변화는 어떤 습니까?

A. 코로나19를 일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의 검증 및 활용이 될 때까지는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면역이 저하된 환자나 노령 인구의 높은 사망률을 고려할 때 이들에서의 코로나19 발병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직장에서의 온라인 수업 및 미팅, 다수가 모이는 행사 및 해외여행 자제, 병의원이나 장기시설에서의 철저한 모니터링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까요?

A. 신종 혹은 재출현 감염병의 유행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 및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나라가 지구촌의 한 일원이라는 인식하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최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에 따른 조기 진단, 치료, 예방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의료계의 권고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있더라도 개인과 공동체의 활동은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은 어떠합니까?

A. 현재까지 코로나19, 특히 중증 코로나19 감염을 치료하는 약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하루속히 이러한 약제가 나와주기만을 바랍니다. 이러한 치료제와 예방 백신의 개발이라는 것이 일정 숫자의 대상자들에게서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심스러운 전망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경증 및 중증도의 코로나19 감염을 치료하는 약제 및 예방 백신은 개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증 코로나19 감염 치료제의 개발 및 검증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에 춘천이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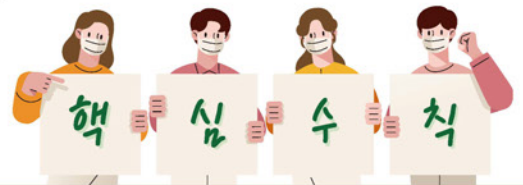
A. 워낙 교통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타지 사람들의 방문이 많은 관광지인 춘천지역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발병 위험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를 대하는 춘천시민들의 차분한 대처인 것 같고 이에 따라 춘천에서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문제를 덜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의료전문가로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A.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을 보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및 이에 근거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서로 얽혀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과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결국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경제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Q.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평소 건강관리수칙이나 면역력 증진법을 알려주세요.

A.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손 위생, 실내 환기, 밀폐되거나 밀집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만 잘 따른다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방역

- 제 1 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제 2 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제 3 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제 4 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제 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집단방역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청년 정책 청년이 만든다



춘천시 청년청 사무국 직원들

지난해 11월 20일 춘천시 청년청이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청년의 문제를 청년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의 지원으로 자치 기구를 만든 곳은 전국적으로 춘천시 청년청이 유일하다. 강원대학교 앞 커먼즈필드에 입주해 있는 청년청 사무국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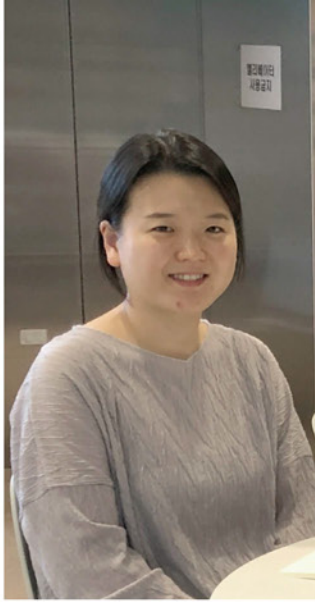
글 김선순

Q. 청년청, 그게 뭔가요?

A. 청년청 설립은 민선 7기 이재수 시장이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안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청년이 직접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치기구죠. 지역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2017년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지난해 청년청 조항이 추가된 법안이 개정되면서 춘천시 청년청이 설립됐습니다.

Q. 춘천 청년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나요?

A. 춘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청년청이 생기기 전까지 지역과 청년 사이에 마땅한 소통창구가 없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춘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실태, 요구를 모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최수빈(25 · 홍보담당)



김정곤(30 · 운영팀장)



이동곤(33 · 사무국장)



김영은(29 · 사업담당)

Q.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까요?

A. 일자리라는 게 어느 날 똑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춘천과 같은 소도시에서는, 하지만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다 보면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모이다 보면 함께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이 청년청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면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시책으로 연결될 수 있지요. 새로운 도전, 다양한 시도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청년의 고민도 해결해주나요?

A. 일방적으로 해결해주기보다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겠지요. 청춘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상담사를 통해 고민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려고 해요. 청년을 둘러싼 생활에서 오는 고민을 관계 형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방향 탐색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Q.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고요?

A. 청년청의 역할을 청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확장했습니다. 민선 7기의 중점과제인 직접 ·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치를 구현하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자치를 이루어낸다면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Q. 청춘의회도 있고 청년의원도 있던데요?

A. 청년정책의 당사자가 자율적 · 독립적 ·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정책참여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제도가 청춘의회입니다. 춘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10명 정도가 모였고 추가로 연중 상시 모집 중입니다. 개방성을 위해 자격이나 인원 제한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분과, 문화체육분과, 복지분과, 도시분과, 정치참여분과 5개 분과가 있으니 원하는 분과별 모임에 참여하면 됩니다. 정책아카데미나 멤버십캠프를 통해 정책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예산 수립과 편성 · 집행과정에 필요한 필수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Q. 청년활동 지원사업도 한다고요?

A.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실험적 활동 및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과 대학을 이을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죠. 청년들의 자발적 활동을 발굴하고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실험과 상상이 도시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온라인청년청도 기대됩니다.

A. 익명성에 익숙한 청년세대에 맞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정책제안 및 전자투표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모바일 중심의 웹 트렌드에 부합하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주제별 모임 및 공론장 등 일상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고 청년활동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춘천경제 살린다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춘천에는 2만2,000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그 가운데 83%인 1만9,000여개가 소상공인이다. 특히 지난 3월 소상공인 2,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최고 50%에서 최소 2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영안정 자금 대출 또한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부는 춘천 지역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춘천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생업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예산 104억 원을 확보, 업체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를 통해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출생년도 끝자리 짝 홀수 2부제에 따라 시청 1층 민원실 내 사회적경제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강원도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원 대상이 된다.

연매출 1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가운데 2019년 2~3월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신청 후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5월 29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모바일상품권으로 신청



모바일 신청

세대주(5부제 아님)

①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 앱 접속 후
긴급재난지원금 모바일 상품권 신청 클릭

② 신청서 작성

③ 사용승인 및 PIN번호 문자발송

④ (신청자) 상품권 등록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용 · 체크카드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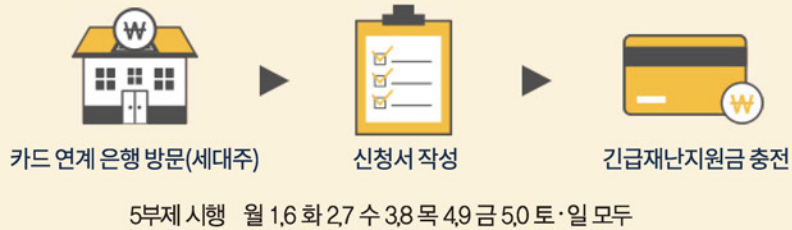
신청기간 ~8.18.(화)

세대주께서 본인 명의의 신용 ·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로 신청

신청기간 ~8.18.(화)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 수령 시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위임장 지참)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선불카드는 2020.8.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강원도 내),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유효기간까지 사용(춘천시 내)이 가능합니다.

김유정문학촌 공립문학관 됐다

김유정문학촌이 공립문학관으로 등록됐다. 강원도에서 공립문학관 등록은 김유정문학촌이 최초다.

김유정문학촌은 2002년 8월 개관 후 2016년 추가 조성을 통해 지금의 문학촌 모습을 갖췄다. 공립문학촌 등록은 강원도 내 ‘문학진흥법’에 근거한 것이다.

춘천시정부는 김유정문학촌 공립문학관 등록을 위해 지난 3월 26일 문학관 등록 신청을 했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등록 통보를 받았다.

김유정의 작품과 당시의 문학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연구·보존·전시·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것이다.

공립문학관의 경우 등록자료가 10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

시설 100㎡ 이상,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도난 방지시설, 온도·습도 조절 장치를 갖춰야 한다. 김유정문학촌의 전체 건축 면적은 2,593㎡며 등록자료는 355점이다.

이순원 문학촌장은 “지금까지는 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학촌을 운영했는데 공립문학관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활동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며 “강원도 최초로 공립문학관이 된 만큼 강원도의 다른 문학관에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정문학촌은 문학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 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정무수석
- 전 최문순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춘천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춘천의 승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도 있지만 어깨가 무겁습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춘천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도 높이고 수부도시 춘천의 위상과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무엇보다 춘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춘천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춘천의 물 규제에 대한 법률적인 개선 노력을 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되는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춘천시와 지역사회 전문가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호수를 주제로 하는 아름다운 춘천호수 국가정원을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국민의 행복권과 기본권은 강화하는 입법활동을 하겠습니다. 초심과 진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 제18대, 19대 국회의원
- 전 육군 2사단장, 5군단장, 교육사령관
- 현 (사)한국청소년연맹 총재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한기호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는 춘천시민, 철원, 화천, 양구군민의 전폭적인 사랑이 있어서 가능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 지역을 위해 이 한 몸 부서져라 뛰고 또 뛰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준엄한 명령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약속했던 현안들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안보에 대한 확실한 목소리를 통해 바로잡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지역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니 편 내 편 가르치지 않고, 남 탓 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도리를 다하고 의리를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춘천, 장벽 없는 도시로 탈바꿈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설 접근성 개선 등 나서

춘천이 장벽 없는 도시로 탈바꿈한다.

춘천시정부는 국제로타리 3730지구 2지역(대표 유병남), 명동 상점가 상인회(회장 김대봉),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미)과 함께 '장벽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이 편리하면 우리 모두가 편리하다는 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벽 없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이를 시작으로 시정부 등은 장애인이 가장 살 만한 도시 조성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동의 상가 7개소에 접이식 경사로가 설치된다. 접이식 경사로 설치 비용은 국제로타리 3730지구 2지역에서 지원한다. 이후 CGV 춘천점과 풍물시장, 은하수 거리에 접이식 경사로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 전역의 인도와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연차별로 보도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이 언제, 어디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의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이와 함께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한다.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먹거리 지역인 명동 닭갈비 골목 내 상가의 화장실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이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전에는 명동 인근의 대형 상가 화장실을 열린 화장실로 임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과 ☎ 250-3365

춘천 어린이 보호구역 더 안전해진다

15억원 투입...무인 교통단속장비 새로 설치

춘천시정부는 5월부터 총 국비와 시비 등 1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성원초 등 10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새롭게 설치한다.

또 남춘천초 등 7개소의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지난 2월 경찰서와 함께 점검한 결과에 따라 기존 성림초 등 7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모든 어린이보호 구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교통과 ☎ 250-3722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 183억원 확보

소상공인 지원·희망일자리·전통시장 등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시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1회 추경예산 18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104억원, ▲시설개선 및 홍보 지원 1억원 ▲공공배달앱 구축 1억5,0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화행사 지원 3억원 ▲희망일자리 지원 74억원이다.

시 전체 사업체(2만2,997개)의 8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1만9,158개)의 경우, 사업체 2,000개 표본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2월 대비 매출이 업종별 최고 50%에서 최소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또 전년 1~3월 대비 휴업은 38.8%, 폐업은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시정부는 추경예산을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집중 지원해 조기 위기 극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80만원이다.

본내 편집실은 춘천시청의 입장, 의견을 뜻하는 표현으로 '춘천시' 대신 '춘천시정부'로 표기합니다.
민선 7기 춘천시정은 시민이 주인이고, 주체인 시민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자치, 분권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우선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사회적경제과 ☎ 250-4436

“귀농·귀촌 전 춘천에서 한 달 살아봐요” 농촌체험 프로그램 마련… 숙박비 등 지원



춘천으로 귀농·귀촌을 하기 전 미리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시정부는 춘천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춘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했다. ‘춘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농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정부는 귀농·귀촌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달 살기 체험 장소는 사북면 오탄2리 대추나무골 마을이다. 해당 마을은 2010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012년은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받았으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거주기간은 최소 1주일부터 최대 1개월까지 정할 수 있으며 표고버섯 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과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배울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인 1일 기준 5만원 범위 내에서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며 그 외 식비 등 생활비는 자부담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시정 소식란 또는 미래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춘천에서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래농업과 ☎ 250-3546

마을자치지원센터 ‘첫발’... 창립 이사회 개최 이사장 선출 임원 선임·정관 개정(안) 등 안건 심의

시민의 주도성과 자발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첫발을 내딛었다.

시정부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창립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마을자치지원센터 임원 선임과 이사장 선출, 정관 개정 등을 심의했다.

또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제규정을 제정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구)춘천문화원을 리모델링한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실무지원, 마을공동체와 마을 단위 민간네트워크 구성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 21명으로, 2020년도 9명 채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전체 면적은 448㎡다.

마을자치지원센터 주요 사업은 주민자치 지원, 시민교육, 마을공동체 조성 등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시민주권 구현은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시정부의 시정 운영 방향”이라며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자치 분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주권담당관실 ☎ 250-4316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범 도입 인허가 단계부터 상담... 불법 광고물 차단 효과

불법광고물을 예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시행된다. 시정부는 5월 중순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사업자가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반드시 들러 간판 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받는 제도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표시 방법에 대해 신고와 허가 절차를 광고물 부서를 통해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인식 부재와 관리 소홀로 불법 광고물이 증가 해왔다.

이로 인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단속과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 원상 복구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 간 신고로 갈등이 발생하고 무분별한 간판 난립으로 도시 미관이 저해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정부는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사전 경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간판이 필요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차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개업하려면 업주는 보건소에 영업신고서를 접수하기 전 시청 광고물팀에 간판 신고 절차와 설치 수량 등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체육시설업 등 간판이 필요한 업소다.

사전 경유제가 정착할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자인과 ☎ 250-3183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6월 개소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6개 학교 방문 실시



안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한 춘천 자전거 시민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문을 연다.

시정부는 6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춘천 자전거 시민학교의 1단계 사업이다. 시정부는 지역 내 6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 1학교당 4회에 걸쳐 자전거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1회당 교육 인원은 20명으로 올해 총 대상자는 480명이다.

대상 학교는 춘천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통해 선정할 것이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주 교육 대상이다. 교육 내용은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이론 교육과 자전거 타고 내리기, 코스별 운행 등 실기 교육이다. 교육 대상자별로 자전거 교재를 제공하고 교육 이후에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안전한 교육을 위해 시정부는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교육생에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용 자전거는 춘천자전거 재생센터의 재생 자전거를 이용할 방침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자전거 천국을 추구하고 있는 시정부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시민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교통과 ☎ 250-3720

농업인 직불금 ‘한 번’에 수령

6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농업인 직불금이 하나로 통합됐다. 시정부는 6월 30일까지 2020년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경관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쌀 직불, 밭 직불, 조건 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 직불금을 받았지만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눠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진다.

올해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 활성화 등의 17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신청은 가장 큰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미래농업과 ☎ 250-3764

무더위 씻겨줄 ‘물터널’ 7월 준공

약사천 산책로 100m 구간 설치... 도시열섬 완화 기대



한여름 무더위를 씻겨줄 ‘물터널’이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정부는 건강한 하천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약사천 산책로 물터널이 7월 준공된다고 밝혔다. 국비 등 4억2,000만원을 투입한 물터널은 약사천 산책로 봉의초교 아래 구간으로 길이는 약 100m다.

물터널이 조성되면 약사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하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물터널은 우천시 작동을 멈추거나 운영 시간을 정해 원격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물터널이 완성되면 약사천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설과 ☎ 250-4197

비 내려도 도로·주차장 ‘뽕송’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효과… 물웅덩이 사라져



물 순환 도시 구축을 위한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정부는 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은 빗물이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토양으로 스며들게 하여 건강한 물 순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해 여러 종류의 불투수성 포장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가 내리면 빗물은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고 도심 내에 쌓여 있는 오염 물질과 함께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시정부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투수성 포장과 식생수로 등을 설치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특히 직접적인 빗물 유출을 감소시키고 빗물의 재활용을 증가시키는 비점오염원 관리 등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이나 지하수 부족, 도시 침수 같은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현재 사업을 완료한 소양동행정복지센터와 근화동행정복지센터 등 5개소 주차장은 빗물이 토양으로 흡수돼 비가 내리는 날에도 빗물이 고이지 않아 뽕송뽕송한 주차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환경정책과 ☎ 250-4340

“춘천시정부-전통시장 짝꿍 됐어요”

1국·1시장 자매결연… 물품구매·화식 등 추진



춘천시정부가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는다.

시정부는 ‘1국·1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정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며 전통시장 물품구매, 각종 모임 시 이용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각 전통시장에서는 품질 좋은 물품을 공급하고 원산지과 가격 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별 자매결연 시장은 9개소로 기획행정국-중앙시장, 복지국-후평시장, 경제재정국-풍물시장, 교환경국-서부시장, 문화도시국-동부시장, 농업기술센터-샘밭장터, 보건소-남부시장, 상하수도사업본부-번개시장, 평생교육원-제일시장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과 ☎ 250-4483

춘천도시공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39개 시설… 9월부터 서비스



춘천관광공사진전 입선 심민혜 <스카이워크의 소경>

춘천도시공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 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식원, 안식공원, 시민복지회관 등 복지시설과 소양강스카이워크,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 관광지를 비롯하여 종합경기장, 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39개 시설로 장묘시설과 소양강스카이워크 및 관광지는 전액 감면하고, 기타 체육시설 등을 50%를 감면한다.

시스템 구축은 6~8월 3개월간 이뤄지고 9월부터 서비스가 적용된다. 춘천도시공사 신용철 사장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대상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도입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도시공사 ☎ 240-1536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자유 위한 용기와 희생

옛 공지천 다리는 봄내골을 진입하는 첫 관문이었다. 효자동을 가로
지른 냇물이 소양강 하류의 대바지강 줄기와 만나는 어귀다.

벚꽃이 지천으로 흐드러졌던 천변은 어느새 파랗게 채색됐다. 호수
위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오리배가 가득하다.

원래 공지천의 이름은 곰지내였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
이 춘천 외갓집에 놀러왔다가 머슴에게 여울 짚을 곰지내에 버리게
했더니 물고기로 변해 공지어孔之魚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전설과
함께 붙여진 이름이다.

봄내골 주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로, 산책길 모퉁이를 지나려면
언제나 로스팅한 커피 향이 그윽한 곳으로 소문났다.

공지사거리에서 다리를 건너가는 중간, 조각공원 맞은편에 아프리카
특유의 건축 양식을 지닌 아담하고 이색적인 ‘에티오피아 한국전참전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 되는 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날아와 선뜻 치열한 전투에
참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전사戰史와 그 후 70년간 이어져 온 선린善
隣의 관계를 살피려 기념관을 찾았다.

글 김길소 사진제공 에티오피아 기념관 · 강원일보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비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하일레 셀라시에 에티오피아 황제 (1968.5.19)

무적 신화를 써낸 용맹

한국전쟁은 정부 수립(1948년) 이태 뒤인 1950년 6월 25일에 터졌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병력 파견과 의료 지원을 결의, 참전에 나섰다.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 전투지원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 5개국이 참전했다. 이때 에티오피아도 1만4,500km나 떨어진 머나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와 3년 1개월 동안 이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상군을 한국에 파병한 것은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치열했던 1951년 5월 6일이었다.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의 명을 받아 참전한 군인들은 막강

한 황실 근위대인 강뉴(초전박살이라는 뜻임)부대가 주축을 이룬 최정예부대였다. 산악전투에 능한 이들은 도착 즉시 고지가 많은 봄내골 인근의 화천, 양구, 철원 지역에서 벌였던 고지쟁탈전에 투입됐다.

강인한 강뉴부대의 전과戰果는 지금도 전사戰史에 길이 남아 있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 눈이 쏟아지는 혹독한 추위나 무더운 더위와 맞서야 하는 전혀 다른 날씨 속에서 무려 253회의 전투를 벌였다. 그 결과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포로가 한 명도 없는 진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귀신 잡는 해병대'와 비견될 정도로 용맹성을 떨쳤다.

그러나 전사자 121명, 부상자 536명 등 모두 657명이 이역 만리에서 고귀한 피를 흘렸다. 휴전 이후에도 1965년 4월 철군하기 이전까지 평균 1,200명 규모의 보병 1개 대대병력을 유지시키며 총 6,037명 규모의 전투병력을 파병했다.

특히 전쟁이 벌어졌던 1953년 동두천에서는 병사들이 월급을 모아 고아원을 설립, 전쟁고아들을 보살폈다. 휴전 이후에는 적십자 소속 간호요원을 파견, 대민의료지원사업을 펼쳤다.

혈맹의 발자취 담긴 전시관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은 참전기념비(1968년 건립)가 세워진 지 38년 만인 2007년에 2층 규모로 세워졌다. 정문 위쪽에는 참전 16개국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입구 양쪽에는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붙어 있어 첫눈에 참전기념관임을 알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기념관 내부 참전기념전시실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이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내는 편지가 곳곳에 전시됐다. 이어 6·25전쟁 당시의 모습이 재현된 전시실(2개)과 에티오피아의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전시실(2개)이 있다.

이곳 다목적전시실에서는 참전 당시의 영상을 시청하고 참전 이후의 발자취도 살펴볼 수 있었다. 참전용사들이 첫발을 디딘 1951년 5월부터 1954년 3월에 이르기까지 2년 10개월 동안 벌였던 삼각고지, 악어고지, 사테리고지전투와 253회의 전투 기록이 담겨 있다.

실제 전쟁을 치를 때 썼던 군복과 총기류, 통신장비 등은 전쟁의 상흔을 지금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기념관을 나서기 전에는 전사자 121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단과 함께 참전 이유를 밝힌 기록이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용기와 희생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일찍이 에티오피아는 외세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 국제연맹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무위로 끝난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었다. 이러

한 역사적 경험으로 에티오피아로 하여금 강력한 집단행동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에티오피아가 부유한 국가는 아니지만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UN의 대의에 따라 파병을 결정하였다.”

2층의 풍물전시실은 ‘다뭇악숨왕국’ 아래 찬란한 문명을 일궈낸 역사와 전통의상 악기 등을 관람할 수 있었다.

교류전시실에서는 그동안 양국이 우의를 증진시키면서 주고받은 특이한 기념품과 생활용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또 세계적인 기호 음료가 된 커피의 최초 원산지요, 최대 생산국임이 소개됐다.

공지천변은 ‘우정의 동산’

봄내골이 ‘커피의 도시’를 꿈꾸게 된 밑바탕에는 에티오피아 가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최초요, 최대 커피 생산국인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가 36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봄내골에서 손수 기념비를 제막하고 돌아간 이후부터였다.

그 중심에 공지천변에 있는 에티오피아 벵(집이라는 뜻임·근

화동 371-3소재)이 큰 몫을 해냈다.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창업자 조정민, 김옥희 부부에 이어 딸 조수경, 사위 차중대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이다.

원두를 직접 뽑아낸 향과 맛에 심취한 커피 마니아들이 즐겨 찾고 7080세대들이 데이트를 즐겼던 추억의 장소로 전국 커피 여행에 빠뜨리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당달아 경제 발전에 따른 커피 수요 폭증도 '커피의 도시 조성'에 대한 꿈을 부추겼다. 여기에는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용기와 희생에 보답하자는 교류증진운동까지 가세했다.

이 바람에 한때는 커피 제조공장과 시음장 등을 갖춘 전국 최고의 대단위 커피랜드를 조성하자는 부론 계획이 추진되기도 했다.

더불어 호국보훈의 도시 조성을 위해 6·25전쟁 당시 한강 이남지역을 사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2000년 6월 개장)이 있는 근화동 일대의 쓸모없는 땅이었던 제방 인근에 참전 16개국의 전통음식타운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계획도 추진됐었다. 그러나 이마저 유보돼 빛을 보지 못한 아쉬운 기억이 새롭다.

우방의 황제가 찾아왔다고 봄내골이 들끓었을 때 집사람은 환영 행사에서 국악을 연주했던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는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7년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과 경제난으로 촉발된 쿠데타로 공산국가(1974년)가 된 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면서 다소 소강 상태를 맞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배품과 은혜에 보답하자는 각계의 보은 활동은 멈춤 없이 붓물을 이뤘다.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선린^{善隣}의 관계가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공지천변을 양국 '우정의 동산'이라고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기념비와 에티오피아 하우스가 세워지고 기념관이 건립된 인근에 황제가 직접 심은 상록수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가 훈련을 쌓았던 근화동 폭방 2.5km도 '에티오피아의 길'로 명명된 후 시민들로부터 산책의 명소로 사랑을 받고 있다.

또 2017년부터는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에티오피아 문화제를 열어 전후 세대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공지천 이디오피아 카페(1985.)



에티오피아의 길에서 열린 커피 문화제(2019.10.3.)

멈춤 없이 이어진 보은의 물결

코로나19로 세계가 팬데믹(pandemic) 사태에 빠져있다. 이 와중에 기념관도 잠시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잘 버텨낸 우리나라를 향해 세계 각국이 방역 SOS를 보내고 있다.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하고 있는 나라가 120개국이 넘는다. 어느 나라에 먼저 수출하느냐를 놓고 고민하던 정부가 에티오피아를 최우선 지원국으로 정하고 방역 물품 등을 지원했다.

더구나 민간 차원에서는 '6037운동'까지 펼쳐지고 있다. 바로 6·25 참전용사 6,037명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마스크를 기부하자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운동이다.

기념관 안에 있는 흑백사진처럼 하얗게 빛이 바랜 파란만장한 지난 역사를 돌아보니 어느새 공지천변이 진정한 국제우호관계의 상징처럼 다가왔다.

보훈의 달인 6월에는 이 땅에 자유의 깃발을 들어올린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며 에티오피아의 길을 달려야겠다.

김길소 한국전래오락연구소장, 춘천 태생. 1970년 강원일보사에 입사해 편집국에서 강원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취재했다. 편집국장, 논설주간, 상무, 전무이사를 지낸 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언론사와 피해자의 중재 역할을 해 왔다.





서부시장 가는 길엔 아찔도 봉은장과 실비떡국수가 있다

서부시장으로 가는 길

글 · 사진 최돈선

옛날, 사람들은 서부시장을 가기 위해 사창고개를 넘었다. 자동차는 드물었다. 그 거리는 걸어 다니는 길이었고, 그 길은 오밀조밀 상점들이 그림처럼 모여 있는 거리였다. 멀리 강 건너 눈 덮인 삼악산에 해가 지면 상점의 그림자들이 길을 덮었다. 그러면 상점의 진열창이 오렌지 빛으로 반짝이곤 했다.

50·60년 전엔 춘천총포사란 이름의 수제엽총을 만드는 공방이 있었다. 우리나라 총포면허 1호인 장인匠人은 충구에서부터 개머리판까지 일체를 손으로 만들었다. 이 수제품은 명품으로 사냥꾼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그곳에선 늘 쇠 깎는 소리와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났다. 총기 모양의 형틀에 쇠물이 부어져 시푸른 연기가 솟아났다. 그 연기는 쇠냄새를 풍기며 환기통을 빠져나와 겨울 저녁하늘로 사라졌다. 그때면 사냥꾼들이 하나·둘 총포사로 찾아들었다.

그 사냥꾼들의 어깨엔 산양이나 사향노루가 메어져 있었다. 그러나 허탕 친 사냥꾼도 있었다. 몇 주일이고 산속을 헤매다 사냥을 망친 사냥꾼들은 빈 어깨로 돌아왔다. 비록 산양이나 곰을 잡지는 못했지만 허리춤엔 꿩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공장 가게 안은 19공 탄탄로가 이글거렸다. 막걸리를 손에 든 설악산 사냥꾼과 태백산 사냥꾼들은 산짐승 이야기로 밤을 새웠다. 곰가죽 옷을 해 입고 사냥을

총포사터에 세워진 정육점



나갔다가 다른 사냥꾼의 오인사격으로 비명에 간 이야기도 있었다. 사냥꾼의 처는 어느 늙은 영감에게 씨받이로 팔려 갔다고 했다. 사창고개 골목과 거리는 이 사냥꾼들의 무용담으로 그렇게 늘 흥청거렸다.

1967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사냥이 엄격히 통제되자 전문 사냥꾼들이 사라졌다. 엽총을 만들 수 없는 총포사공장은 문을 닫았다. 총포사 건물이 헐리고 2층집의 자색 시멘트건물이 들어섰다.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은 육고기를 칼질하는 정육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총포사와 이웃했던 갈비집 봉운장은 그대로 남았다. 봉운장 건너편 실비막 국수도 아들이 대를 이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아들도 어느덧 초로의 나이가 되었다. 몇몇 식당과 상점은 남아 있지만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천도교도, 건너편 관공 찌는 집도, 하얀 솜틀집과 그 옆의 대장간도, 총포사 건너편 소목장이 일하는 목공소와 꿈꾸는 사진관도.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서부시장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 뚫린 것이다. 춘천시는 사창고개 위쪽 언덕에 구멍을 뚫었다. 그 구멍을 요선터널이라 했다. 길은 터널을 지나 곧장 서부시장에 닿았다. 1971년에 낸 그 요선터널이 1994년에 헐렸다. 이제 요선터널은 이형재 화가의 그림 속에서나 아련히 존재할 뿐이다.

춘천의 진산인 봉의산을 따라 길게 늘어진 능선 위로 조가비처럼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던 판잣집들도 터널과 함께 사라졌다. 그 높은 언덕의 흙은 쉼 없이 공지천으로 운반되어 호수를 둘러싼 긴 둑이 되었다. 능선은 평평해졌고 길은 넓혀졌다. 거대한 아파트가 사창고개와 새로 난 서부대성로 사이로 우뚝 솟아올랐다.

옛날 판자촌 마을 사람들과 사창고개길에 면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다. 낯선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은 이전에 여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곳에 총포사가 있었는지, 대장간이 있었는지 그들은 알 필요가 없었다. 아파트의 주민들은 바깥고, 언제나 반짝이는 차를 타고 다녔다.

사라진 요선터널(그림 이형재)





사창고개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그토록 번성하던 거리가 게으르도록 한산해졌다.

예전부터 사창고개는 그 이름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회자되어 왔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나서 사창고개 아래쪽으로 집창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가늘고 비좁은 골목길이 정맥처럼 뻗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골목을 장미촌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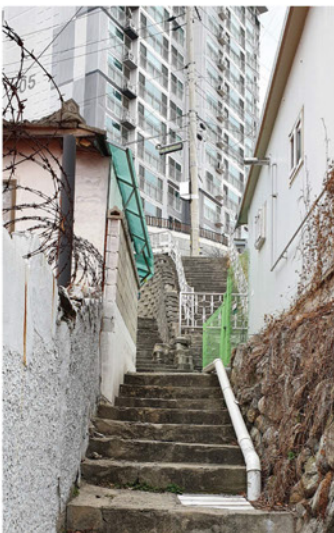
사창社會는 본래 조선시대 문종 때 지방군현의 촌락에 설치한 곡물기관이었다. 그 기관의 주된 임무는 빈민구호였다. 이 고개 어딘가에 그런 기관이 존재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이 있었던 자리에 춘천 유수 민두호의 귀재당歸在堂이 세워졌다. 귀재당은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의 공적을 기려 백성들이 받들어 모시는 사당이라 했다. 그러나 민두호는 그런 훌륭한 수령이 아니라 탐관오리였다. 매천야록의 저자 황현은

오하기문에 ‘춘천부 유수 민두호의 탐학으로 강원도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유랑인이 되었다’고 썼다. 백성들은 그를 쇠갈고리 민두호라 불렀다. 그 민두호의 아들 민영휘는 당시 조선의 최고 부자가 되었다.

귀재당은 나중에 유랑하는 날탕패와 남녀 사당패의 숙소가 되었다. 이 떠돌이 유랑인들의 숙소는 흥등가나 다름없었다고 칼럼니스트 이규태는 썼다. 어쩌면 귀재당은 사창촌이 될 운명을 지녔던 모양 같다.

사창社會가 사창私娼으로 변모한 것은 참으로 기막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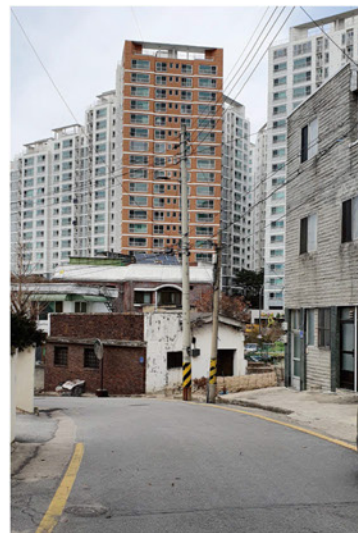
어느 날 머리 더부룩한 한 청년이 골목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이 수상한 청년은 사창고개 위에서 좁다란 골목으로 내려가 서부시장 끝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되돌려 비탈진 골



사창고갯길로 오르는 골목길



처마를 맞댄 좁은 골목길



사창고갯길과 아파트의 공존



목길을 걸어 올라오곤 했다. 그러다가 여인들과 만나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집집마다 발그레하게 꽃이 핀 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달여를 자주 등장하다가 이내 자취를 감추었다. 이 장발의 청년은 어느 날 ‘꿈꾸는 식물’이란 이름의 소설을 써 세상에 냈다. 책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하루아침에 이 무명의 소설가는 장미촌을 무대로 한 스타가 되었다.

작은형이 돌아왔다.

이렇게 시작되는 소설 ‘꿈꾸는 식물’은 사창고개의 상징이 되었다. 1978년,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공전의 히트를 친 고려원은 이 나라 최고의 출판사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다.

장미촌을 떠나지 못하는 식물성 인간들, 그 군상들의 모습이 처절하리만큼 아름답게 묘사된 이 소설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당대 최고의 문학평론가 김현은 ‘충격적인 섬세한 감수성’이란 제목의 비평문을 썼다. 혜성같이 등장한 이 소설가를 문단에서 주목한 것은 당연했다. 섬세한 감수성과 독특한 문체는 일거에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이 극단적인 유희주의 소설에 매료된 독자들은 비쩍 마른 이 무명소설가를 향해 선망과 경의를 표할 정도였다. 이외수, 지금 그 이름은 춘천의 브랜드가 되었다.

지금 이 소설가는 사고로 뇌를 다쳤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도 말을 하지 못한다. 그는 아마도 깊은 자기 세계에 침잠해 있는 듯싶다.

‘꿈꾸는 식물’의 무대가 된 장미촌은 이제 말끔히 지워지고 없다. 단지 오랜 전설처럼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만 가늘게 전해질 뿐이다.

장미촌골목을 지나다니며 기웃거렸던 손님들도, 비좁은 골목을 비추던 석양도 영영 자취를 감춰버린 지금, 그곳엔 새롭고 번듯한 길이 났다.

이 평온한 골목에 역사의 아픔이 자리했었다. 살기 위해 부평초처럼 이 골목으로 몰려왔던 꽃다운 청년은 이제 초로 이거나 고혼이 되었거나 했을 것이다.

이외수 작가가 돌아온다면 그의 심혼에 어떤 아름답고 비극적인 꽃이 새로이 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외수 작가는 깨어날 것이다.

그의 쾌유를 빈다. *



이외수의 첫 장편소설 <꿈꾸는 식물>, 1978

최돈선 시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춘천의 골목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한 시인은 골목순례를 결심했다. 골목은 춘천시민의 가장 깊은 내면이며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그 옛날 춘천 ⑥

〈편집자 주〉 옛날 신문에 나온 춘천의 기사와 사진을 보면서 그 시절 춘천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는 코너입니다.



춘천역의 탄생

타지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 춘천에서 왔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외지인의 뇌리 속에 춘천은 낭만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듯하다. ‘춘천 가는 기차’란 노래를 따라 부르며 기타를 멘 젊은이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춘천이었다. 낭만의 도시란 이미지가 생겨난 요인은 많겠지만 호수의 도시라는 지형에 더불어 경춘선이란 철도가 큰 영향을 주었다.

서울의 성동역과 춘천역을 연결하는 93km의 경춘선이 만 2년간의 공사를 거쳐 1939년 7월 22일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전쟁 수행에 있어 절대적 핵심산업이 철강 제조이고, 철강 제조에는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춘선은 철강 생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화천발전소 건설 기반시설로 부설됐다. 즉, 일제강점기 국토자원의 수탈을 목적으로 한 철도였다.

경춘선의 종착지인 춘천역 역사는 경춘선 개통 1개월 전에 완성되었고, 124평의 건평에 평가목조平家木造의 일본식 건물구조였다.(매일신보, 1938.12.28, 기사 참조) 1936년 역사가 들어설 장소로 소양강과 가까운 전평리前坪里가 선정됐다. 당시 전평리는 앞뚜루라고 불리던 완만한 구릉지였고, 화천으로 연결되는 소양강상의 주요 지점이었다. 거주민 대부분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빈민이었다. 100여 호에 달하는 거주민이 강제로 이주해야 할 처

지에 놓였는데 이주지와 보상 비용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당시 손영목 강원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만주로 이주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매일신보, 1937.2.11, 기사 참조) 일제강점기 국내 거주민의 만주 이주사는 수탈 현장에서 국외로 내몰리는 일반 백성의 뼈아픈 고통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지어졌던 춘천역사는 6·25전쟁 초기에 소실됐고 1958년 12월에 새로운 역사가 완공됐다. 1977년 한 차례 증축 공사를 거쳤다가 2005년 경춘선 복선 전철 공사로 다시 철거되고 이후 새로운 현대식 역사가 건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 춘천역은 화천댐 공사 자재와 인부의 집합소였고, 60년대에는 월남전 파병 장병의 집결지이자 출발지였다. 70~80년대 젊은이들의 청춘과 낭만이 넘쳐났다면 현재는 수도권 전철망으로 진입하여 서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과 직장인, 여가를 즐기는 노년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춘천역이 종착지가 아니라 화천, 철원을 거쳐 북쪽으로 또는 동쪽으로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남북 강원도의 중심지이자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는 전초 기지 역할을 맡기를 기대해 본다.

글 김근태(춘천학연구소 학예연구사)



6·25 때 소실됐다가 1958년 새로 완공된 춘천역사의 모습.
2005년 경춘선 복선전철 공사로 철거된 후 지금의 현대식 역사가 지어졌다.

개통식 앞둔 춘천역사

경성京城이 기점 춘천춘이 종점인 93키로 5부의 경춘철도 공사는 오는 7월 개통을 앞두고 주야겸행으로 레일 부설, 각 역을 준공하기 위해 크게 분주한데 구내 총평수가 거의 5천 평으로 종점역인 만큼 대규모적으로 건설 중에 있던 춘천역춘驛도 16일 드디어 외부 건축만 완성되어 앞으로 몇 날 안 걸려 내부 정돈이 끝나리라 한다. 이것으로 연선 각 역은 준공이 목전에 절박하여 있고 철교도 전부 완성, 레일도 27키로 밖에 안 남아서 말일까지는 전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어 7월 23일경에는 대망의 개통을 보리라 하며 묵하 춘천번영협회에서는 개통식에 대한 만반 준비를 급히 하고 있다 한다.(사진은 외부완성된 춘천역)



〈동아일보 1939년 6월 19일자〉

**開通式앞두고
春川驛舍竣工**

【春川 敬設京城이 기점종점
(春川이 종점인 九十三키로) 5
부의 경춘철도공사는 오는 7월 개
통을 앞두고 주야겸행으로 레
일 부설, 각 역준공키에 대분방인
테 구내 총평수 5천 평으로 종점역
인 만큼 대가모집으로 건설중에 있
다. (사진은 외부완성된 춘천역)

여 외부건축만 완성되어 앞으로
몇 날 안 걸려 내부정돈이 끝나리라
한다. 이것으로 연선 각 역은 준공
이 목전에 절박하여 있고 철교도 전
부 완성 『레』 후도 二키로 부
에 안달려 말일까지는 전 공사가 완
성되리라 기대되어 7월 23일경
에는 대망의 개통을 보리라 하며 묵
하 춘천번영협회에서는 개통식에
대한 만반준비를 급히 하고 있다 한
다. (사진은 외부완성된 춘천역)

마을버스 타고 춘천 한 바퀴 ⑤
동면1(감정리 · 상걸리)

사랑사랑 일렁이는 그림자 몸과 마음을 달래주다

종료 직전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모두 빗나갔다.
가장 화사하게 빛나는 춘천의 봄을 빼앗겼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몸을 깨어나게 한다.
싱그러운 초여름의 신록 또한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 산으로 가야겠다.

글 · 사진 안선희



봄내길 새 코스 노루목길 열려

봄내길 여덟번째 코스 '장학리 노루목길'이 열렸다고 한다. '노루목'이라는 이름은 노루가 많이 노니는 길목이라는 설도 있으며, 이 마을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겨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마을버스 동면1(상걸리·감정리행)을 타면 장학리로 갈 수 있다.

오전 11시 30분(마을버시간표 변경전) 중앙시장환승센터에서 출발했다. 장학1리마을회관 정류장에서 하차, 노루목저수지를 끼고 걷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물이 무척 줄었지만, 늘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이 이렇게나 줄었는데 뭐가 잡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눈앞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물 위로 튀어오른다. 낚시꾼의 애가 탈 만하다.

한림성심대 후문 쪽 들머리 있어

노루목저수지를 지나 한림성심대학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장학리 노루목길은 한림성심대 후문 쪽에 들머리 표지판이 서 있다. 전에는 '신내고개 등산로'로 불리던 길이다. 이번 봄에 장학리 노루목길로 재정비되고 표지판도 모두 새롭게 만들어졌다.

노루목길로 들어서자 바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눈앞에 펼쳐진다. 제법 뜨거운 정오 시간인데, 걷는 내내 그늘길이다. 산길은 솔잎이 수북이 쌓여 있다. 폭신평신킨, 걸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솔방울만 주의한다면 맨발로 걸어도 좋을 듯하다. 10분 정도 오르자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벤치와 선베드가 보였다. 동네 마을 사람들이 자

주 찾는 곳으로, 쉬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늘길 걷다 보니 지친 마음 사라져

왼편으로는 소양강이 얼핏 보인다. 시내와 인접한 이름 없는 산이지만, 나무는 제법 무성하다. 옆에 소양강이 흐른다는 것을 알지만 나무가 시야를 가려 시원한 강 모습을 볼 수 없다. 나무가 덩성덩성한 곳에서 가끔씩 소양강과 그 건너 아파트가 보일 뿐이다.

5km 정도의 짧은 산책로다. 한참 걷다 보면 신내고개 정상으로 향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신내고개 정상에는 막상 표지석이 없다. 정상이라고 하지만, 꼭 걸어온 길과 큰 차이가 없다. 전망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노루목길 끝 1900년 대 전통가옥 둘러볼 만

신내고개 정상에서 내려오면 다시 한림성심대와 장학1리로 갈라지는 작은 삼거리가 나온다. 장학1리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20여분 만에 노루목길의 또 다른 들머리에 도착한다. 길 끝에는 작은 카페가 있어 맘을 식히기에 적당하다.

짧은 노루목길이 아쉽다면 걸어서 1분 거리의 춘천 민성기가옥도가 볼 만하다. 휘문중학을 설립한 민영휘의 묘가 있는 민씨묘의 묘막을 관리하기 위해 1900년대 초에 지은 가옥으로,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 66호로 지정됐다. 화천에 있던 민가를 옮겨다 지은 것으로, 영서 중부지방의 전통 가옥집이다. 묘를 지키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지만, 언제나 열려 있다. ●

여행 코스 TIP

마을버스 운행시간 * 노란색은 중앙시장까지 운행

동면1(감정리) 기점발(후평동종점) 9:50 14:50 19:00 21:25

종점발(감정리) 10:40 15:15 19:25 21:50

동면1-1(상걸리) 기점발(후평동종점) 6:45 7:55 13:00 16:15 19:55

종점발(상걸리) 7:15 9:00 13:50 16:50 20:30

버스 소요시간

중앙시장환승센터에서 장학1리마을회관까지는 15분이면 도착한다.

추천경로

장학1리마을회관에서 하차, 노루목저수지를 옆에 두고 걸어 볼 만하다. 신내고개 정상을 넘어서도 걷는 길이 있지만, 길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 중간에 돌아와야 한다.

난이도 ●●●●●●●●

장학1리마을회관에서 출발, 쉬엄쉬엄 걸으면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짧게 걷고 싶다면 바로 한림성심대학교까지 가는 시내버스(1, 2, 10, 12번)를 타고 가는 것도 좋다. 한림성심대학교를 관통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노루목길을 걸으면 3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



12년 이어오는 따끈한 장터국수

매주 목요일 농협중앙회 직거래 장터서 국수 판매
일부러 찾아오는 어르신들 대접하는 보람
직접 농사지은 국산 재료로 만들어

중앙시장과 보건소 근처에 농협중앙회 강원지부가 있다. 이곳에서 매주 목요일이면 우리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열린다. 그때그때 나는 제철 나물과 과일들, 갓 짠 신선한 참기름, 들기름 등 장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곳곳이 정겨움을 더한다.

지난 5월 7일은 코로나19로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장터가 울들어 처음 열린 날이었다. 목요장터가 열리기를 애타게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곳 장터에서 파는 국수 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다.

“국수 먹고 싶어서 혼났어. 여기 국수 먹으려고 일부러 후평동에서 왔다니까.” 국수 한 그릇을 푹푹 비우고 계산을 하던 60대 어르신 말씀이다.

12년을 한결같이 이곳에서 국수를 팔고 있는 사람은 동면지내1리 부녀회장 김종혜 씨(63)다. 김종혜 씨 부부와 지내1리 부녀회원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국수와 빈대떡을 만든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10년 이상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예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수고하는 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에요. 봉사하는 마음 없으면 못 해요. 국수 한 그릇 3,000원 받아서 뭐가 남겠어요? 육수 내고 김치 담고 재료비가 엄청나요.”

국수 면과 녹두는 국산을 쓸 수 없지만 나머지 재료들은 모두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우리 농산물이다. 배추, 고춧가루, 마늘, 파 등 온갖 양념이 모두 국산이다. 국수를 미리 삶아 오면 편하지만 갓 삶은 국수의 맛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장터에서 직접 국수를 삶고 행구어 팔아놓는다. 팔아둔 국수가 다 떨어지면 그날 장사는 끝이다.

멸치육수도 장터에서 직접 우린다. 육수가 떨어져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 장사속으로 하는 일이라면 시판 다시다를 풀어서 금방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육수지만 한 번도 타협을 한 적 없다.

“빈대떡도 3,000원인데 인기가 많아요. 4장은 만원인데 포장



주문이 많아요. 마을버스 타고 중앙시장 정형외과에 치료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일부러 목요일에 맞춰 병원 진료를 보신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불편해진 김종혜 씨는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어디 가서 봉사를 하겠냐며 어르신들께 국수를 대접할 수 있는 이 일이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목요일엔 장터국수 한 그릇 먹으러 중앙시장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

“고려 문인 이자현 차유적지 ‘세수터’로 알려져 유감”

춘천역사 공부하던 중 이자현 추모 위해 모임 만들어
기일에 맞춰 청평식암터서 다섯 번째 헌다례 올려
등산로에 포함 유적지 훼손…우회 등반로도 만들어

춘천 청평사에는 900년 된 차 유적지가 있다. 이 유적은 고려 시대 문인 이자현(1061~1125)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깊다.

이자현은 1089년(신종 6년) 과거에 급제하여 대악서승(大樂署丞)이 되었으나, 관직을 버리고 춘천의 청평산(淸平山)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세웠던 보현원(普賢院)을 문수원(文殊院)이라 고치고 당(堂)과 암자를 지어 이곳에서 나물밥과 배우(배우)로 생활하며 선(禪)을 즐겼다고 한다. 예종이 사람을 시켜 외삼촌에게 다향(茶香)과 금백(金帛)을 보내어 여러 번 불렀으나 사양하였다. 1117년(예종 12년) 예종이 남경(南京)에 행차하였을 때 왕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곧 다시 문수원에 들어가 평생을 수도생활로 일관하였다. 시호는 진락(眞樂)이다.

이자현이 차를 마시며 수도생활을 한 곳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유적지 안내판에는 ‘이자현 세수터’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손을 씻는 곳이 아닌 차를 받아 그 물로 차를 끓여 마시며 수양을 했던 곳이지요. 세수터라는 표기가 참 아쉽죠. 춘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귀족층으로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이곳에 와서 청렴한 생활을 한 이자현 선생의 정신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생의 유적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후대의 일이고, 저희 헌다례 모임이 그 길을 열 수 있어서 영광이지요.”

청평거사 진락공 이자현 헌다례(차를 올리는 예식) 모임을 이끌고 있는 정미선 회장의 말이다.

이자현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헌다례 모임은 2015년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매년 이자현의 기일(음력 4월21일) 즈음에 다례를 올리고 있으며 올해 다섯 번째다.

“비가 와서 걱정이었는데 헌다례를 하라고 비가 그쳐준 것 같아요. 몇백 년 전 인물인 고려시대의 진락공(이자현)께 헌다례를



고려시대 문인 이자현을 추모하기 위한 헌다례 모임

하는 지금, 우리는 그분과 시공을 초월하여 만남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그분의 생각을 현재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민복 차림의 회원들이 차와 음식을 준비하고, 회원들의 4배를 시작으로 초헌, 아헌, 종헌례 순으로 헌다례가 진행됐다. 올해는 회원을 비롯해 시민 약 50명이 참가해 다례제를 함께했다.

이날 헌다례에 참석한 육동한 전 강원연구원장은 “선조들의 유서 깊은 차 유적지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이 행사에 참가해서 향 깊은 우리 문화를 잘 알게 됐다”고 전했다.

헌다례를 지낸 곳은 청평 식암터다. 그곳으로 오가는데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참가자 중에 이곳을 오갈 때 절벽 아래로 미끄러지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또한 ‘세수터’라고 적힌 차 유적지는 오봉산을 오가는 등산객들의 등산로로 그냥 밟히고 있어 이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시민들이 돌을 들어 우회 등반로를 만들기도 했다.

과거 선인의 유적지를 잘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려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것이 문화특별시를 완성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춘천은 문화특별시다.



삶의 활력을 되살려줄 강력한 ‘웃음폭탄’이 찾아온다

‘2020 춘천연극제’ 6월 13~20일 코미디 연극 7편 공연
공모 통해 검증된 ‘국내 최고 수준’의 작품들로만 선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연영상 중계 등으로 대체될 수도

오늘,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웃음은 단순한 감정표현 수단을 넘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활력소다. 폭소처럼 크게 소리 내어 자주 웃으면 병든 세포도 되살아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폐활량 증가나 근육 운동 효과 등 건강에 무척 유익하다고 한다. 웃음은 그야말로 돈 안 드는 만병통치약인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안팎이 온통 우울한 시기,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2020 춘천연극제’에서 코미디 연극 7편이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은 그래서 무척 반갑게 들린다.

“2년 전까지는 이른바 ‘로맨틱 춘천’에 걸맞은 정극(正劇)을 주로 공연했는데, 연극이 대중친화적인 예술장르가 아니다보니 관객들 호응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고심 끝에 지난해부터 ‘즐거움과 웃음’의 의미를 둔 코미디 작품을 무대에 올렸는데, 관객들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사)춘천연극제 홍보담당 황덕주(29)팀장은 “지난해 공연한 ‘그날이 올 텐데’라는 작품은 앙코르 요청이 이어져 9일 동안 추가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매번 객석이 가득 차는盛况을 이뤘다”고 덧붙인다.

올해 선보일 코미디 작품 7편은 전국 극단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뽑았다. 심사 기준은 무엇보다 ‘객석을 점령하는 강력한 웃음’이었고, 검증되지 않은 초연 작품은 제외했다. 일정 기간 공연했고 관객 평가 또한 좋았던 작품들로만 구성했다는 것이다.

연극제는 6월13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당초 개막축제는 때를 약사천 수변공원에서 하모나이즈 합창 퍼포먼스와 미스터 트롯 출신 신인선의 공연, 창작뮤지컬 ‘루나틱’ 등이 화려하게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격 취소됐다. 야외행사인 난리법석 페스티벌과 소소아마추어연극제 역시 무산됐다.

다만 축제극장 몸짓에서 1주일간 진행될 국내경연 ‘코미디릭



(사)춘천연극제 홍보담당 황덕주 팀장

키7’은 코로나 극복 지원공연으로 전환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운영한다.

작품 당 하루 2회(5시, 7시30분)공연하며 개그맨 정태호 등이 출연하는 ‘그놈은 예뻐다’(14일), ‘조선궁녀연모지정’(15일), ‘죽여주는 이야기’(16일), ‘지갑소개소’(17일), ‘고양이라서 괜찮아’(18일), ‘기쁜 우리 젊은 날’(19일), ‘때때로 사랑을 멈추다’(20일) 등 7편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관중 공연이나 공연의 영상 중계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공연문의는 춘천연극제 홈페이지(www.citf.or.kr)나 (사)춘천연극제(033-241-4345).

“국내 최고 수준의 작품들이라고 자부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객석과 무대가 함께 들쭉이는 코미디 연극을 보면서 한바탕 크게 웃고 맘껏 즐기셨으면 합니다.”

대학시절 일어일문학을 전공했으나 연극동아리 활동이 계기가 되어 아예 진로를 무대와 공연기획 쪽으로 정했다는 황 팀장은 인터뷰 내내 춘천연극제에 대한 열정과 생기 넘치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카누 위에서 즐기는 소양강 일출

조전기 카노아 대표, 카누 제작·패들링 교육도
춘천시 카누선수 활동하며 환경정화 활동 참여
수달 등 목격... 도심 속에서 자연 느낄 수 있어

지난 겨울 신사우동 소양3교 근처 소양강 안에서 카누를 타며 일출을 기다린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잔잔한 강물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 카누가 나아갈 때마다 일렁이는 물결 등 강 위로 비친 근처 아파트의 모습은 마치 판 세상처럼 느껴졌다.

진귀한 경험 후 이런 체험을 운영하는 사람이 궁금해졌다. 여러 번 물을 먹은(?) 후 겨우 만난 카노아(KANOA) 조전기 대표(41).

“2008년 특전사 단기 하사 전역 후 어릴 적 꿈이었던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어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마침 지인의 연결로 필리핀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수상레포츠를 접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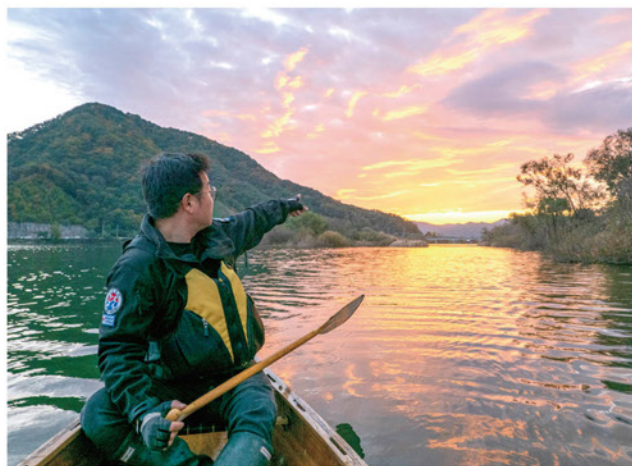
2011년까지 필리핀에서 수상레포츠관련 사업을 했다는 조 대표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살려 수상레포츠 사업을 시작했다. 그가 대표로 있는 카노아는 스포츠 IT사업 외에 카누 제조와 카누 패들링, 수상안전 등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하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해 도와가는 삶을 살아라’였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특전사 동지회를 찾아가 수중 쓰레기 줍기 등의 봉사를 시작했죠. 또 춘천 자유총연맹 청년회장을 맡으면서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며 태극기 바로 그리기도 가르쳐 주고, 환경정화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왜 그렇게 만나기 어려웠는지 바로 이해가 갔다.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치고, 특전사 동지회에서 봉사활동, 춘천시 카누선수 대표 등 그 앞에 붙는 수식어는 셀 수 없을 정도다.

또 올해는 강원도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로 위촉돼 액티비티 스포츠와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있고, 강원도 DMZ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란다. 그에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

“아이들이 10살, 8살인데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하



소양강에서 카누를 타는 조전기 카노아 대표

죠. 아이들 깨기 전에 나가서 잘 때 들어가니까. 하지만 시간 나면 열심히 놀아주려고 노력해요.”

아이들과 아내 이야기를 하며 머쓱한 표정을 짓는다. 남을 위해 도움 되는 삶과 남편과 아빠로서의 삶의 조율이 어려운 탓인 듯하다.

“소양강 수변공원에서 카누를 타며 겨울에는 흰꼬리수리도 봤구요. 천연기념물인 조롱이, 남생이, 수달 등을 자주 목격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자연이 보존된 곳은 흔치 않죠. 환경적으로 고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카누 탈 때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또 소수 인원이어야 주변 환경도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타시는 분들도 조용하게 주변 경관을 둘러보실 수 있으니까요.”

카누 이용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요즘은 입소문이 났는지 이용객이 늘고 있다고 한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스포츠 경호학과에 입학했어요. 스포츠 공부는 물론 사업가로서도 병행하고,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도 계속 이어 갈 생각입니다.”

그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보람이라고 한다. 올해도 바쁘게 보낼 그의 약진을 기대해 본다.



“당신의 기억력,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고령화 시대 복병’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이 최선택
 춘천치매안심센터 1:1 맞춤형 치매지원 서비스
 뇌 관리 7원칙, ‘진인사대천명고’ 실천하자

치매의 무서움은 ‘기억’을 하나하나 지워 가다가 마침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 있다. 삶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지식·능력·기억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판단력 상실과 망각의 늪’으로 빠져드는 치매는 삶 자체의 붕괴를 뜻한다. 사람들이 암보다 치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치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오던 사람에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기억력 및 인지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로 나누며,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를 치매로 판단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 기억력 장애로 나타난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건망증 등이 생기지만, 치매에서의 기억력 저하는 일반적인 건망증과는 양상이 다르다.

예컨대 ‘깜빡 잊는’ 건망증은 어떤 약속이나 날짜 등 사건의 일부분을 잊었다가 뒤늦게 깨닫는 식이지만, 치매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 또 익숙한 동네에서 길을 잃거나 오랜 지인들을 몰라 보기도 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환자 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약 75만 명 정도. 연령별 유병률은 65~69세 1%, 70~74세 4%, 75~79세 12%, 80~84세 21%, 85세 이상에서는 40%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보건의사업의 하나인 치매 관리를 위해 현재 전국 지자체 단위로 약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춘천치매안심센터(석사동 스무길길 4-46)에선 간호직 15명, 행정직 공무원 4명 등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7월 개원 후,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치매 기초검진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500명 정도가 2차 정밀검진 대상자로 분류됐죠. 2차 검진 대상자는 전문의 진단을 통해 치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확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정밀검진 자체를 거



춘천치매안심센터 이진희 주무관(사진 왼쪽부터), 이정봉 계장, 김인란 주무관

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에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치매검진 외에도 치매환자 치료 약값 및 물품 지원,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가족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치매 예방 및 환자관리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엔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공개강좌도 운영 중이다.

“치매는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니며,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0세 이상, 치매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심장병을 앓는 경우, 머리를 다친 병력 등 치매 위험 인자를 지닌 사람이 기억력 장애를 느낀다면 반드시 기초검진부터 받아 보셔야 합니다.”

치매는 일단 발병하면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늦춰주는 약물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최선택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향간에 회자되는 치매 예방을 위한 7가지 수칙 ‘진인사대천명고’의 내용은 이렇다.

▶진담나게 운동하기 ▶인정사정없이 금연 ▶사회활동 많이 하기 ▶대뇌활동을 활발하게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기 ▶명수를 연장하는 식사 ▶고혈압·고혈당·고지혈증 없애기.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남산초 서천분교 아이들

“우리는 코로나 걱정 없습니다!”

전교생 13명 서천분교 아이들

자연 속에 묻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남산초등학교 서천분교 운동장은 몇십 년째 묵묵히 아이들을 바라보며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응원했을 수십 그루의 나무가 에워싸고 있다.

맑고 상큼한 공기를 마음껏 뿜어내고 있는 연두색 잎이 예쁜 5월의 나무는 곧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아이들의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 줄 것이다.

유치원생 두 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어린이와 3명의 선생님이 함께하는 서천분교는 교실 입구부터 남달랐다. 복도에 들어서자 깊고 진한 편백나무 향이 코끝을 자극했고 교실 안에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한 아이들이 넓은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었다.

두 명의 유치원생은 마치 남매처럼 놀이터에서 마스크를 쓴 채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남산초등학교 서천분교부장이자 1·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근 선생님은 “코로나19의 장기 여파로 많은 학교에서 걱정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우리 학교는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 수로 별다른 걱정이 없다. 전교생이 온라인 개학과 돌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철저한 거리두기 수칙을 통해 아이들이 학습과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천분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로 가득하다. 교장 선생님은 1주일에 한 번씩 본교에서 와 업무를 보고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도 하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도 나눈다. 또 매달 생일을 맞는 학생에게 직접 그림카드를 만들어 선물로 주며 매일 만나지 못하는 그리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든 곳이 자연체험 학습장이 된다는 것은 다른 분교와 비슷하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학교 옆 10분여 거리에 있는 굴봉산 전철역이다.

이곳이 역세권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이상근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창의력과 인성, 감성 등을 자연스



럽게 익힐 수 있는 최적의 자연환경과 함께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최근에는 타 지역에서 전학 오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천분교는 월 2회 체험학습과 본교에서 추진 중인 중인 체험학습프로그램이 있고 연극, 피아노, 미술, 컴퓨터, 서예, 국악, 방승 댄스 등 예체능 위주의 방과 후 교육을 전액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처음 시작한 1박 2일 ‘학교 뒤뜰야영’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니 인성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고 경쟁심 없이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고운 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근 선생님의 말처럼 서천분교 아이들은 나무처럼 곧고 맑게 자라고 있었다.



봉의산에 빠지는 101가지 이유

코로나19로 24시간 육아... 새벽마다 봉의산으로 탈출
짧은 시간 정상 올라 자신감... 매일매일 다른 모습이 매력
두 달 만에 다양한 연령층 '봉의산꾼'들과 친구 돼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동 자체가 헛된 생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종일 아이들 돌보며 24시간 집콕을 하다 보니 숨이 턱턱 막혔다.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봉의산이 눈에 띄었다.

개인적으로는 봉의산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녀 체육 시간에 종종 쓰레기를 주우러 갔던 곳, 내려올 것을 왜 올라야 하는지 친구들과 투덜투덜 올랐던 학교 뒷산, 딱 그 정도의 기억이 있던 곳이었지만 무턱대고 오르기로 했다.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어 오전 6시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르기 시작한다. 돌아돌아 아껴 올라가도 20분이면 체육 시설이 있는 정상에 도착한다.

깜깜한 새벽인데도 이미 올라와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쌍철봉을 잡고 날아오르시는 분,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며 스쿼트를 백만스무 개 이상 하실 것 같은 분들 모습을 보니 열심히 뛰기라도 해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아오른다.

이렇게 봉의산을 매일 오르는 지 70여 일이 되어 가니, 늘 아침에 스치는 봉의산꾼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봉의산은 시작점이 여러 곳인데 한림대 사회대에서 시작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살짝 가팔라 운동하는 재미가 느껴진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어르신, 그런데 여러 좋은 길을 두고 꼭 이 길로 다니시는 할머니가 걱정이 돼 여쭙다.

“어르신 혹시 저쪽 둘레길로 가보셨나요? 이 길은 가파르고, 저쪽 둘레길이 무릎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쓸데없는 기우고 오지랖이었다.

“내가 80이 조금 넘었어. 봉의산 다닌 지는 20년이 넘었어. 저쪽 계단으로 다니다가 요즘 이 길로 바꿨어. 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재미가 있어야지 쪽 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재밌어.”

재밌다?!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재미가 중요한 것이다.

“두 달 넘게 봉의산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쯤 되니 진달래가 피는구나, 진달래가 지니 다른 꽃과 풀이 자라

는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과 좋은 공기로 저는 봉의산 매력에 쏙 빠져 출근 전 이른 새벽 오르게 되네요. 코로나19로 새벽 수영을 못 가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가 우연히 봉의산을 만난 이후로 비가 와도 우비라도 입고 오르고 있어요. 크지 않아 산을 끝까지 오르고 내려올 수 있는 것도 봉의산의 매력이에요. 매일 산 정상을 오른다니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라고 강미란 씨(40)가 전해 주었다.

매일매일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봉의산, 재미있는 매력이 많은 봉의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다양하다. 종종 초등학교로 보이는 아이들도 엄마랑 형이랑 봉의산을 찾는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변한 일상. 운동을 나가 봐도 마스크를 잘 쓰고, 오갈 때 동선이 겹치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천은 다른 곳보다도 코로나19 확산이 적었던 곳이다.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성숙된 시민의식 덕분일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치는 마음을 다잡고 지금처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힘내기를 바란다.

서은영 명예시민기자 bluelion7@hanmail.net



3,500원 하던 통닭, 그 맛 못잇는 고객에 감사

38년차 '요선통닭' 모자가 함께 운영

막내아들, 직장 관두고 요리 배워 새 메뉴 개발도

“소풍 · 운동회날 아이들과 함께 못해 미안함 남아”

요선동 골목엔 한 자리에서 골목을 잘 지켜준 귀한 가게들이 많다. 그 귀한 가게들 가운데 38년 차 요선통닭집을 찾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과 다르게 썰렁했지만 여전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신영자 사장님(67). 1983년에 처음 문을 연 '요선통닭'집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막내가 5살 때였어요. 아이들이 셋인데 뭘 좀 더 해야겠다 싶어서 춘천에서 통닭집을 하시던 형님과 의논을 했는데, 기술을 알려줄 테니 통닭 장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제 고향이 춘천은 아니지만 아이들 아빠 고향이 춘천이에요. 3남매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경기도에서 춘천으로 이사온 후 형님에게 열심히 배워서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렇게 오래 하게 될지 몰랐지만 후회도 없고 행복합니다.”

오래된 손님들과는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낸다며 춘천은 제2의 고향이라고. 특히 8년째 함께 해주고 있는 아들이 있어서 더 힘이 난다고 한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한다니 걱정이 됐어요. 쉬운 길이 아니니 그냥 직장을 다니라 타일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눈빛만 봐도 제일 잘 통하는 사이가 됐어요. 아들이 직장을 정리하고 한동안 요리를 배워 메뉴도 개발했어요. 손님들이 다양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장사를 하며 좋기만 했을까, 힘들었던 점을 여쭙다.

“힘들었지요. 특히 우리 아이들 소풍, 운동회 때 오래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게 가장 미안해요. 통닭집은 그날이 대목이라 가장 바쁜 날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미안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바쁜 엄마 아빠를 잘 이해해주고 잘 키운 게 가장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게 잘 자라준 막내아들이 엄마와 함께 같은 길을 걷겠다 하니 얼마나 뿌듯하실까 싶다.

사장님께 처음 통닭 가격이 기억나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당연



하다고 말씀하셨다.

“3,500원으로 시작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꾸준히 잊지 않고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변함없는 맛이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양배추도 다 썰고 치킨무도 담그며 1부터 10까지 손님들에게 나가는 음식은 다 직접 해요. 오셔서 맛있다고 말씀해주시고 꾸준히 와주시니 정말 고맙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싶어요.”

말씀을 하시며 중간중간 축축해지는 목소리에 사장님이 하시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애정의 깊이가 느껴졌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신지 여쭙니 “많이 힘들긴 해요, 그래도 모두가 힘들잖아요. 잘 견뎌내 보자 노력하고 있어요.”

38년 동안 한결 같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헤아릴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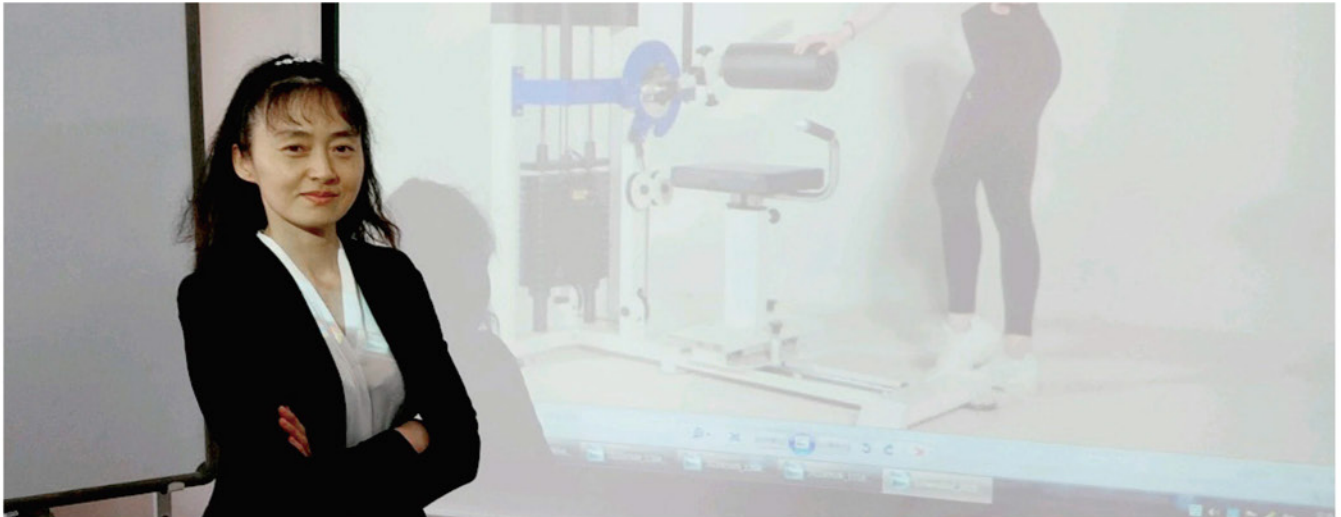
사장님의 요선통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느껴지는 건 단순한 음식에 대한 애정과 직업이 아니라 겸손함과 한결같은 삶에 대한 삶의 철학이었다.

어렸을 적 처음 맛본 통닭 맛을 누가 잊을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었나 눈 번쩍 뜨게 했던 7살에 처음 맛본 그 맛을 다시 만났을 때의 놀람과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수많은 브랜드가 넘쳐나는 치킨 홍수 속에 38년간 잘 버텨준 요선통닭집이 고맙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초등 교사 그만두고 창업가로 변신한 김은비 씨



**어린 자녀 육아 때문에 교사직 포기
허리질환으로 시작한 운동이 보디빌딩 선수로 이어져
무릎 부상으로 재활운동기구 만들며 창업가로 변신**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려 할 때 주변의 많은 분이 반대하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남편과 상의 끝에 과감하게 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내색은 안 하셨지만 제일 많이 서운해하셨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질 듯한 허리통증이 찾아왔다.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내린 진단은 척추분리증. 가사와 육아에 힘쓰기 위해 직장까지 관렸는데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오자 앞이 막막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 김은비(47) 씨는 재활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수영을 하라고 해서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그 결과 시민수영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됐어요.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지속한 결과 이전보다 허리통증이 많이 완화됐어요. 급기야 보디빌딩 대회에서 수상까지 하게 됐죠. 헬스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상당 기간 운동을 지속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릎관절에 무

리가 오면서 결국 운동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무릎 부상이라는 악재는 그녀의 삶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줬다. 헬스운동과 보디빌딩 선수로 활동하면서 무릎 부상을 입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무릎 부상 질환을 회복할 수 있는 재활운동기구를 만든 것.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스포츠과학 대학원도 진학했다. 창업가로 변신한 이은비 씨는 현재 춘천시 1인 창조기업센터에 입주해 (주)레빗 대표로 제품 개발연구에 전념 중이다. 관련 특허를 6개 받았고 특허청장상 수상도 했다. 대학 시절 익힌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변리사 도움 없이 나 홀로 출원에 도전해 미국특허증도 받았다.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불투명한 미래가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그럴 때마다 뚜렷한 목표를 바라보며 작은 목표들을 하나 둘 이뤄 나갔어요. 그러자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오히려 힘들었던 지난날의 다양한 경험이 앞으로 나갈 원동력이자 버팀목이 됐어요.”

지금도 과거에 운동할 때처럼 식지 않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김은비 씨. 앞으로는 탄탄대로만 걷기 바란다.



공연

*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숙선, 박애리, 남상일의 국악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다

판소리계의 살아있는 전설 안숙선, 똑똑한 스타 토끼 박애리, 용궁 제일의 충신 자라 남상일이 국악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다'를 펼친다. 판소리 '수궁가'에 예술적인 멋과 해학적인 재미를 더한 공연으로, 이야기 중간중간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넣어 더욱 풍성한 들을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시 6. 4.(목) 19:30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입장료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문의 ☎259-582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소년 공연 해설사의 예술감상수업 : 연극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공연예술 감상 교육 기회를 제공, 문화예술 향유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연극편 수업에서는 연극 구성 요소들을 배우게 된다. 또 극장에서 연극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관람 예절도 습득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교육봉사과 연계된 연극 해설사 활동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일시 6. 6.(토)~7.11.(토) 17:10:00~13:00 / 27:13:00~16:00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대상 춘천 거주 중·고등학교생

문의 ☎259-5443



[축제극장 몸짓 기획공연] 연극 '하녀들'

'하녀들'은 프랑스의 유명 극작가 장 주네의 명작을 2인극으로 새롭게 구성한 공연이다. 마담이 되고 싶었던 두 하녀의 이야기를 통해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만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시대가 흘러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의 계급주의를 돌아보게 한다.

일시 6. 11.(목) 19:30

장소 축제극장 몸짓

입장료 전석 2만원

관람연령 15세 이상 관람 가능

문의 ☎259-5822



[온세대 합창페스티벌] 가족합창단 발대식

2020 온세대 합창페스티벌의 주인공인 가족합창단 발대식이 열린다. 전국 각지에서 30여개 팀이 모인 이 행사는 가족합창단원들과 그들을 10주간 지도할 멘토 및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일시 6. 13.(토) 10:00

장소 KT&G 상상마당 춘천 야외무대

문의 ☎259-5825

[춘천시립교향악단] 제153회 정기연주회

'저명작곡가 교향곡 시리즈 II - 멘델스존'

저명작곡가 교향곡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를 선보인다. 1829년 멘델스존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여행하고 로맨틱한 유적 등에 감명을 받아 이 곡을 작곡했다. 협연자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보이스트 함경이 참여한다.

일시 6. 18.(목) 19:30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예매처 광장서적 석사점, 명곡사

입장료 일반 1만원

예매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cccf.or.kr)

문의 ☎259-5869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 제22회 정기연주회

'청소년이 부르는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 인기 넘버를 청소년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전한다.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레미제라블', '캣츠', '라라랜드', '그레이트 쇼맨'과 창작 뮤지컬 '사제동행의 울림' 등에 삽입된 곡들을 들려준다. 어른들을 흥내 내는 것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오롯이 소화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일시장소 6. 20.(토) 19:00 춘천문화예술회관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관람 가능

입장료 전석 무료

문의 ☎259-5874

공연 전시

[춘천시립합창단] 제104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 음악회’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춘천시립합창단은 ‘영원한 빛’으로 남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연주회를 준비했다. ‘미사 페스티벌(Missa Festival)’을 통해 가슴 아픈 과거를 딛고 존재하는 오늘날의 번영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오르가니스트 양하영 씨가 협연한다.

일시장소 6. 23.(화) 19:30 춘천문화예술회관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문의 ☎259-5874



[문화가 있는 날] 아이비, 그리고 오케스트라(樂)

뮤지컬 배우 아이비와 뉴서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파크 콘서트를 펼친다. 양진모의 지휘로 클래식부터, 뮤지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한다.

일시 6. 24.(수) 19:30

장소 KT&G 상상마당 야외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입장

문의 ☎259-5824



[강원대 서양화 전공 교수들 정기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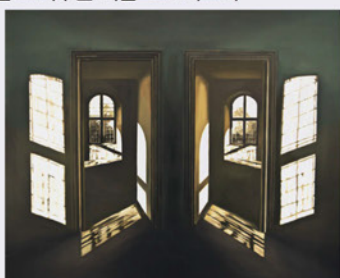
강원대학교 서양화 전공 교수들의 정기 작품전이 개최된다. 서양화 교수 임근우와 초빙교수 김운규, 박흥선, 배서영, Barun Pokrel, 이경진, 이원주, 정두진 등 8명이 함께하는 전시로, 강원지역 미술을 이끌어 갈 인재들을 양성함과 동시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교수들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서로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면서 앞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교류를 이끌어 가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는 전시이다.

일시 5.24.(일)~6.21.(일)

장소 갤러리 4F

(서부대성로48번길 26-1)

문의 ☎010-9031-1506



[여름 산책 전]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은 여전하다. 참여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들의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원한 이웃들과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 참여작가 김영진(서양화), 권매화(궁중민화), 이상근(서양화), 최애주(서양화)

일시 6.1.(월)~30.(화)

장소 클럽 줄루

(동내면 춘천 순환로 108)

문의 ☎262-2411



[안용선 초대전] SOSO小疏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묵묵의 철학으로 담아내는 한국화가 안용선 초대전이 열린다.

작가는 자연과 소통하는 회화적 단서를 ‘천음天音’이라 규정하고, 우주 만물을 무수한 확으로 담으며 순간의 감흥에서부터 진리와 아름다움과 사람다움의 본질에까지 닿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천음’ 작업의 연계로 평소 작가가 실험해 왔던 화첩사생과 작업실에서 사색하며 그려낸 소소小小하면서도 소소疏疏한, 작고 성긴 작업들을 선보인다.

일시 6.1.(월)~30.(화)

장소 느린시간

(서부대성로 446-2)

문의 ☎261-5114



[아람 아트스페이스 이전 개관 초대전]

강원대 정문에서 운영되던 아람 아트스페이스가 석사동 스무췌으로 확장 이전, 개관 초대전을 연다. 수채화가 유명해, 한국화가 서영림, 서양화가 김춘배 등 3명의 작가를 초빙해 개관 초대전을 갖는다.

일시 6.1.(월)~30.(화) (오프닝 1일 15:00)

장소 아람 아트스페이스(스무췌4길 24)

문의 ☎010-7026-3608



전시

*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16회 강원아트페어] 춘천전

제16회 강원아트페어가 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공모가 짧게 진행돼 지난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었다. 하지만 서울 등 타 지역 작가의 지원이 40%에 이를 만큼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춘천전에는 18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 참여작가 김선, 김대형, 김운연, 김춘배, 박대근, 박동진, 윤정미, 이경숙, 이상숙, 장덕진, 정두섭, 정현정, 조순옥, 조옥주, 주정순, 최지관, 한복희, 홍연화

일시 6.3.(수)~7.(일)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문의 ☎010-7026-3608



[춘천민미협 회원전]

새활용 놀이전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쓰레기와 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재앙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민족미술인협회 강원지회

춘천지부는 리사이클링에서 한 단계 진화된 업사이클링으로 접근, 버려지는 용품에 예술가의 심미성과 독창성을 불어넣어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켰다.

강선주, 김나영, 문해숙, 이상근, 신승복, 길종갑, 김길순, 정준일, 박종혁, 윤운복, 김준철, 전수민, 신정민, 박명옥 씨가 참여한다.

일시 6.5.(금)~18.(목) 오프닝 5.(일) 오후 4시

장소 의암 전시실

문의 ☎010-3908-4560



[춘천문화재단 기획전시] 박희선 회고전

‘통일’, ‘한반도’ 등을 주제로 역사의식이 담긴 뛰어난 조각 작품을 창작한 춘천의 고(故) 박희선 작가 전시가 열린다. 특히 이번에는 박희선 작가가 사랑한 ‘나무조각’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며,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와 작품에 깃들어 있는 ‘역사의식’과 ‘생명예찬’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6.12.(금)~25.(목)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

문의 ☎259-5413



[서현종 개인전] ‘청·춘·천’전

‘서민의 삶에서 동화를 그려내는 화가’로 불리는 서현종 작가가 여덟 번째 개인전을 연다.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번 미뤄진 끝에 여는 개인전이다. 춘천 교동, 교동에서 샘밭으로 향하는 시민버스 등 춘천의 모습과 작가의 일상적인 모습이 담긴 아크릴화 25점이 전시된다.

일시 6.12.(금)~28.(일)

장소 복합문화공간 5 note(스포츠타운길 347-9)

문의 ☎010-3917-7577



[춘천여성미술작가회 정기전] 산이 주는 춘천의 아름다움을 보다

춘천은 삼악산과 대룡산, 금병산, 봉악산, 봉화산, 검봉산, 안마산, 마적산, 드림산, 구룡산 등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춘천 산의 풍경 속에 담겨진 기억과 추억들은 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같이, 은은한 차의 향기처럼 우려나온 한다.

춘천여성미술작가회는 ‘산이 주는 춘천의 아름다움을 보다’를 주제로 제 24회 정기전을 연다.

회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춘천 산의 아름다움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작가만의 조형적 언어로 표현, 관객과 추억을 공유하며 소통하게 된다.

일시 6.12.(금)~18.(목) 오프닝 12.(금) 오후5시

장소 춘천미술관 1·2층 전관

문의 ☎241-1856



2020 춘천연극제

올해 열리는 2020 춘천연극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돼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약사전 수변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개막식을 포함해 난리법석페스티벌, 소소아마추어연극제 등은 모두 취소됐다. 13일 개막작 ‘루나틱’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코미디 럭키7’ 코너가 운영된다. 코로나19 극복 기원 공연으로 전환, 전공연을 무료로 진행한다. 철저한 방역 아래 공연이 진행되며, 공연장 상황에 맞춰 관객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추후 확산세에 따라 무관중 공연이나 영상 송출과 행사 축소에 따른 상설 공연도 기획하고 있다.

일시 6.13.(토)~20.(토)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 축제극장 몸짓

티켓오픈 5월말~6월초 홈페이지(citf.or.kr) 및 SNS 공개

입장료 무료

문의 ☎241-4345



개막작	극단	일시	연령
루나틱	이엘플러스	6. 13.(토) 3시/7시	만7세 이상
코리아럭키7	극단	일시	연령
그놈은 예뻐다	주식회사 재미들다	6.13.(토) 3시/7시	만15세 이상
조선궁녀 연모지정	창작군요지경X 몽중자각	6.15.(월) 5시 / 7시 30분	만10세 이상
죽여주는이야기	주식회사 삼형제 엔터테인먼트	6.16.(화) 5시 / 7시 30분	만8세 이상
지갑소개소	극단 광대모동	6.17.(수) 5시 / 7시 30분	만13세 이상
고양이라서 관찰아	극단 아트리버	6.18.(목) 5시 / 7시 30분	만13세 이상
기쁜우리젊은날	극단 대학로극장	6.19.(금) 5시 / 7시 30분	만19세 이상
때때로 사랑을 멈추다	극단 상상창고	6.20.(토) 5시 / 7시	만12세 이상

[KT&G 상상마당 기획전] 포레스트 뮤지엄

KT&G 상상마당이 기획전 ‘포레스트 뮤지엄’(Forest Museum)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숲’을 이루는 모든 생명체를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해 자연에 대한 기록과 수집, 더 나아가 자연과 사회, 인간과의 연결고리를 고민해 보고자 기획됐다. 김이박, 엄유정, 조혜진, 한영진 작가가 참여해 저마다 회화, 애니메이션, 설치미술 등을 통해 관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2개의 전시 섹션을 선보인다.

첫 번째 섹션 ‘숲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사유하는 공간이며, 두 번째 섹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식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는 축화와 위로를 위해 무심코 주고받는 꽃과 화분, 베란다에서 가꾸는 텃밭 등 도심에서 식물을 다루는 모습을 관찰하는데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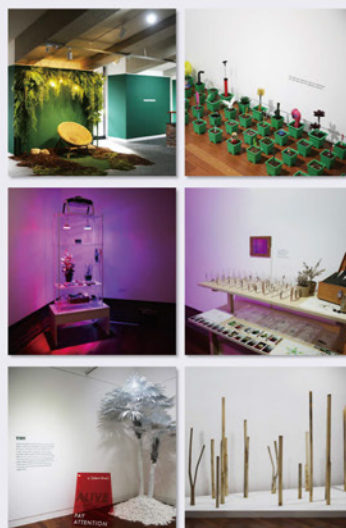
이 밖에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식물 관련 출판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작가와의 만남, 우산으로 만드는 포레스트, 플랜테리어 수업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시 5. 15.(금)~9.13.(일)

장소 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 갤러리1, 2

관람료 무료

문의 ☎070-7586-0550/0537



BOMNAE CULTURE

봄내예술제

*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역 전문예술인과 지역민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민교류축제 봄내예술제가 5월 29일부터 9월까지 춘천 전역에서 열린다.

춘천예총은 5월 27일 오후 7시30분 국립춘천박물관 중앙홀에서 봄내음악제를 시작으로 제27회 봄내예술제를 개최한다.

매년 개최되는 봄내예술제 행사로는 봄내음악회(국립춘천박물관), 봄내미술인전(춘천미술관), 제43회 춘천전국사진공모전(춘천미술관)이 각각 개최되며 9월 5일 공지천 의암공원에서는 거리시화전, 시민동아리 참여 무대인 시민자유무대와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춘천예총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특히 많은 관중이 모이는 시민자유무대와 열린음악회는 9월 5일로 행사를 연기했다. 봄내예술제의 하이라이트인 열린음악회에는 국내 유명가수와 지역 예술인이 함께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며, 6월 4일에는 축제극장 몸짓에서 봄내연극제인 '뮤지컬 아일랜드'가 공연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형 예술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춘천예총 8개 협회가 참여,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과 낭만마켓, 푸드트럭 등이 의암공원 내에 차려져 시민을 만나게 된다.

문의 ☎243-4360

프로그램

행사명	주관	행사일 / 기간	개최 장소
봄내음악회	춘천음악협회	5. 27.(수) 오후 7시 30분	국립춘천박물관 중앙홀
		플루트앙상블, 바이올린독주, 성악, 첼로독주, 오케스트라	
봄내미술인전	춘천미술협회	5. 29.(금)~6.11.(목)	춘천미술관
		일반시민과 미술인의 출품작 120~150점 전시	
봄내연극제	춘천연극협회	6. 4.(목) 19:00	축제극장 몸짓
		아일랜드	
봄내국악제	춘천국악협회	6. 17.(수-장날) 14:00	풍물시장 특설무대
		모듬북, 강원민요, 북춤사위, 피리산조, 사물놀이	
봄내가요제	춘천연예협회	6. 17.(수-장날) 15:00	풍물시장 특설무대
		시민 참여 가요제-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	
전국사진공모전	춘천사진협회	8. 31.(월)~9.3.(목)	춘천미술관
시화전(문학의향기)	춘천문인협회	9. 5.(토)	공지천 의암공원
봄내무용제	춘천무용협회	9. 5.(토) 18:00	축제극장 몸짓
열린음악회	춘천예총	9. 5.(토)	의암공원야외공연장
시민자유무대	춘천예총		
체험프로그램 (풍물악기, 부채 그리기, 가족사진, 나도 시인)	국악, 미술 사진, 문인		공지천 의암공원



지난 1월부터 연재를 시작한
'백세시대 멋진 골드'의 주인공을
찾기란 쉽지 않다.
멋진 분들 대부분이 '겸손'이 필수라
다들 인터뷰를 고사한다.
이번 달 주인공 정을섭 씨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주변에 봄내 소식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 그들의 권유와
설득으로 겨우 승낙을 받았다.

글 김선순

인형 손뜨개로 10년 행복
또 다른 즐거움 찾고 있다

신대엽 작가가 그린 정을섭 씨

불의와 싸우는 자식 응원하던 엄마

‘민주화운동 하던 아들의 어머니, 춘천 시민사회의 거름이었던 일꾼, 지금은 손뜨개 인형을 만들며 노년의 행복을 가꾸며 사는 분’ 그녀를 추천해준 이들이 공통으로 들려준 이야기다.

젊은 시절 정을섭 씨(86)의 직업은 공무원이었다. 결혼 후 2남 1녀를 키우면서 직장을 관두고 전업주부가 됐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자 다시 YWCA에 취직했다.

“큰아들이 서울대 80학번으로 입학했는데 2학년 때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됐어요. 정치범들은 독방을 쓰는데 그게 안쓰러워 매일 기차를 타고 영등포구치소로 면회 갔죠.”

처음에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녀도 불의에 맞서 싸우는 아들 편이 됐다. 당시는 연좌제가 폐지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족은 계속 핍박을 받았다.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계속 뭐가 막혔고 저 역시 계속 퇴사하라는 외압을 받았어요. 방송국 취업 준비하던 딸은 1, 2차 시험에 통과해도 매번 신원조회에 걸려 최종 합격이 안 됐어요. 그래도 한 번도 오빠 원망하지 않고 우애가 좋았죠.”

이제는 이런 얘기 하기도 싫는데 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미안했다. 다 잊고 사는데 찾아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들추는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요즘도 저는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봐요. 연합뉴스나 YTN 같은 시사뉴스를 틀어 놓고 있죠. 나이 들어도 관심사가 그런 데서 안 벗어나네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던 일꾼

정을섭 씨는 춘천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많이 했다.

“아마 YWCA 역사상 그런 유능한 일꾼은 전무후무할 걸요. YWCA에서 하는 살림도우미 교육과 알선 제도 아시죠? 당시는 살림도우미를 출장파출부라고 했는데 그걸 처음 만든 분이 정을섭 씨예요.”

그녀와 함께 일하고 오랫동안 지켜본 한 지인의 말이다. 지인

의 얘기를 그녀에게 들려줬더니 그게 뭐 내가 잘한 일이라고, 그저 맞벌이가 많아지던 시대라 그런 서비스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란다. 시대의 요구였을 뿐이고 그 요구에 응답했을 뿐이라며 몸을 낮춘다.

환경운동연합 대표 일도 했는데 당시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과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던 2016년에도 촛불을 함께 밝혔다.

“나이 들어서 어울리지 않게 그랬구나 싶기도 한데 국민이 누려야 할 것을 위정자들이 누리는 걸 보니 가만있을 수 없더라고.”

나이에 맞게 늙는 것 받아들이다

손뜨개 인형을 만든 지는 10년 정도 되었다. 나이 들어 심심해서 시작한 취민데 어느새 전시회를 네 번이나 연 인형작가가 됐다.

“애들 키울 때 양말도 뜨고 옷도 뜨고 많이 했지. 요즘은 떠 줘도 안 입으니 인형이나 뜨자 하고 만든 건데 하다 보니 너무 좋아요. 인형 뜨게지만 인형이라 생각 안 하고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다 만들고 났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친구들 생일 때 하나씩 선물해도 좋아요.”

요즘은 인형 뜨게 외에 다른 낙을 찾고 있다. 아들딸이 애들 봐달라, 강아지 봐달라 하며 수시로 엄마를 찾지만 그래도 역시나 남는 시간이 많다. 걷는 게 좋다고 해도 나이가 있으니 한계가 있고 맨날 편하게 누워 있을 수도 없어 뭔가 새로운 관심사를 모색 중이다.

더 늙고 나이 드는 게 두렵지는 않냐고 물었다.

“80, 90세 되면 다들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그게 다 노인네들이 그냥 하는 소리지. 물론 괴롭고 아플 때는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싶지. 근데 생명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이에 맞게 살고 하늘에 순응하며 사는 것. 그녀의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웬지 의지가 되는 사람. 그런 그를 만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비밀’을 품은 〈Bee miel〉 달달한 엄마농부

아까시나무와 야생화, 밤나무로 둘러싸인 팔미리. 그곳에는 수만 마리의 벌을 키우는 청년농부 권수연 씨(34)가 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농부이기도 하고, 꿀을 판매하는 회사 ‘봉자’의 대표이기도 하다.

글 · 사진 안선희

도시양봉 실습생으로 벌과 인연

시골 출신도 아니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는 권수연 씨는 아이들의 면역력 때문에 고민하다가 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2017년 ‘봄내’지에 도시양봉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운 좋게 교육생으로 선발됐다. 반년 이상 교육을 받고, 실습도 마쳤다.

현재 80개 벌통 농사

모든 과정을 수료한 후 벌통을 2개 분양받아 집 옥상에서 벌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듬해 벌통이 10개로 늘었다. 식구가 많아지면서 집에서 키우는 데 한계를 느꼈다. 이후 남편 가정리에서 벌을 키웠는데, 집과 농장을 오가는 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생이 많았다. 꽃도 많고 집에서 다니기 편한 곳을 알아보다가 지금의 팔미리 부지를 찾았다. 무턱대고 이장님을 찾아가 문의해 지금의 농장 부지를 임대했다. 현재 벌통은 80여 개에 이른다.

봉자 농장에서는 1년에 네 번 꿀을 뜬다. 5월부터 6월까지 아까시 두 번, 야생화 한 번, 밤꽃 한 번 이렇게 네 번 채밀한다. 6월부터는 벌이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벌의 먹이인 꿀을 모두 떠왔기 때문에 설탕물을 공급해 줘야 한다. 또 여왕벌을 교체해 주는 등 벌 관리에 들어간다.



청년 농부 권수연 씨(위 사진)와 팔미리에 있는 벌꿀 농장

“벌꿀엔 설탕 없어요”

“사람들이 벌꿀에 설탕이 들어있다고 오해해요. 6월 이후 벌들에게 설탕을 먹이지만, 이걸 벌들이 먹이를 주는 거예요. 꿀을 뜨기 전 ‘정리채밀’을 확실하게 해서 천연꿀에는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설탕을 먹여 얻는 저렴한 사양꿀과는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 씨는 사람들이 벌꿀에 대해 오해가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양봉, 시간 자유로워 육아 병행

권 씨는 전업주부였다. 취미로 시작한 양봉이 너무 재미있어 이제는 벌을 키우는 농부가 됐다. 평소 벌레도 무서워하고 농사는 꿈도 꾀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양봉에 푹 빠졌다. 권 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양봉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설명했다.

먹기 편한 튜브병 · 스틱꿀 출시

‘벌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은 봉자는 꿀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매도 한다. 봉자에서 판매하는 꿀은 일반 유리병에 담겨 있지 않다. 권 씨는 꿀을 좋아하지만, 평소 먹기 번거로워 피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여러 궁리 끝에 ‘땅콩병’이라고 부르는 튜브병을 용기로 선택했다. 또 들고 다니며 먹기 쉽게 스틱형으로 개발, ‘비밀(bee miel)’이라는 이름의 제품을 출시했다.

청년 대상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많아

스틱꿀 ‘비밀’의 디자인은 춘천시정부가 진행한 식품산업 인큐베이팅의 도움을 받았다. 또 권 씨는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농에 선정돼 3년간 국가 바우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농사를 짓거나 창업을 준비할 때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다며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주변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꿀술 ‘미드’ 개발하고파

권 씨의 다음 목표는 꿀을 이용해 술을 만드는 것이다. ‘미드(mead)’라고 부르는데, 꿀을 누룩으로 발효시켜 만드는 술이다.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스타트업 챌린저’에 선정, 내년쯤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저보다 벌 농사는 훨씬 잘 짓는데, 업체에 대량으로 넘기다 보니 이문이 적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수매를 도와드리고, 이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권 씨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봉자에서 출시한 스틱 꿀 ‘비밀’과 튜브병에 담긴 야생화 꿀

너의 꿈을 응원해 ⑧
기자가 되고 싶어요



“책임감과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단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수현이는 기자가 꿈입니다. 평소 글쓰기와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수현이의 꿈을 응원해주기 위해 춘천 MBC 백승호 기사를 찾았습니다.

진행/글 김선순

백 기자_평소 뉴스는 많이 보니?

수현_TV나 신문은 많이 보지 않고 인터넷 기사를 주로 봐요.

백 기자_기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으니 다양한 매체의 뉴스를 챙겨 보는 게 좋아. 인터넷에서 뉴스를 클릭, 클릭하다 보면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기사들만 자동 검색될 수 있어. 그러면 편견이 생길 수 있고 가치관도 한쪽으로 쏠릴 수 있어. 종이 신문을 정독하다 보면 여러 얘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판단력도 키워져. TV 뉴스도 MBC,

KBS, G1 등 다양하게 보는 걸 추천해. 뉴스를 많이 소비해야 그걸 바탕으로 좋은 제작자가 될 수 있단다.

수현_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있나요?

백 기자_기자라는 게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 있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냐. 요즘 미디어가 발달해서 블로거나 페이스북 같은 SNS도 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그런데 직업적으로 기자가 되려면 책임감과 사명감이 정말 중요해. 어떤 기사는 누군가

의 직업을 잃게 할 수도 있어.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괴롭겠어?

고교 시절 문과였는데 진로를 정할 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 사기업에 들어가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긴 싫다고.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 쪽은 멋져 보였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권력자들을 견제·감시·비판할 수도 있지.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아마 힘들어서 금방 지칠 거야.

수현_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백 기자_아침에 회의를 하고 그 이후 시간은 주로 외근이야. 사전 취재를 통해 어떤 주제를 보도할지 결정한 다음 섭외를 하고 카메라 기자, 차량 기사와 함께 본 취재에 들어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선 짜기 등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해. 보도가 나간 후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수현_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 인터넷 기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백 기자_본질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아.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가 다르지. 신문 기사를 하다가 방송 기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요즘은 종합편성채널도 많잖아. 예를 들어 연합뉴스 기자로 취직했다가 연합뉴스TV로 갈 수도 있고. 인터넷 기자의 경우 1인 미디어를 하면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

수현_기자가 되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백 기자_생각하는 능력, 글 쓰는 능력을 키워야겠지. 사고력을 키우려면 책 많이 보고 토론도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을 써보기도 하면 좋겠지.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뒤집어서도 생각해 보는 연습을 많이 해 봐. 대화하는 능력, 경청하는 능력도 중요해. 사람과 사회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어. 요즘 워낙 사람을 뽑지 않는 게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언론사에 입사하려면 그런 기본 능력은 길러야겠지.

수현_기자라는 직업을 추천하세요?

백 기자_장점이 많은 직업이야. 일반 회사에 비해 자유롭지,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지, 앞서 말했듯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인 만



큼 보람도 커. 요즘 언론의 위기가, '기레기'다 말이 많지만 그렇다고 이 직업이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누구든지 꿈꾸고 도전했으면 좋겠어. 힘든 만큼 보람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일이야.

수현_오늘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기자님을 만나니 마음에 와닿는 게 많습니다. 제가 기자가 돼서 일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백 기자_아직 시간이 많으니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봐. 내 관심사가 어떤 건지 안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아.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꼭 기자가 아니어도 생각해 보면 좋을 거야. 그리고 나서도 꼭 기자가 되고 싶으면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 봐. 그러면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현이를 위해 기꺼이 시간 내주신 백승호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수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자의 세계를 알려주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현아! 멋진 기자가 되어 우리 사회를 더 환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렴.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시원 2019. 3. 22.

우렁찬 울음과 함께 우리 앞에 태어난 씩씩한 아들 시원아!
아빠 엄마를 반씩 골고루 닮은 우리 이쁜 막내^^
아빠 엄마는 시원이가 우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단다.
그리고 아름다운 춘천에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한호철(아빠), 홍싸이(엄마) / 은의동



황지호 2017. 3. 10.

어느새 쑥쑥 커버린 우리집 귀염둥이♡ 애교 많은 우리 지호로
인해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낸단다.
앞으로도 항상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 지호야 사랑해♡

황선중(아빠), 정호경(엄마) / 칠전동



이윤서 2019.11.24.

사랑하는 공주 윤서야!!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준서 오빠랑 엄마, 아빠랑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줘~ 고마워!! 사랑해♡

이용진(아빠), 김민경(엄마) / 후평동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과 인적사항(아기 이름, 성별, 부모 이름, 주소, 출생일, 바라는 점, 연락처 등)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접수 이메일 bomnae1993@daum.net



장해민 2018. 5. 1.

사랑하는 늦둥이^^ 해민아♡
5월의 푸르른 나무와 햇살처럼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해민이로 인해
우리 가족은 기쁨이 3배가 되었다♡
엄마 아빠는 너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항상~ 응원할게!!
앞으로도 건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 사랑해!!!

장정래(아빠), 김성희(엄마) / 석사동



김민준 2018. 1. 22.

갑상선암 수술 후 선물처럼 온 보물,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키워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키워줄 바라~
엄마 아빠는 영원한 네 편이야~ 사랑해~~~~ ♡

김명환(아빠), 임미선(엄마) / 후평동



신성한 2019. 2. 27.

사랑하는 우리 아가, 성한아!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길 바라. 무엇보다 항상 밝고 건강하며, 모든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 아빠, 엄마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재미있게
잘 지내보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신승운(아빠), 용아름(엄마) / 동면

재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면 '**판**'을 뒤집어봐!

축제를 위한 일회성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만들어지는 생활 쓰레기까지...

협동조합 판(이하 판)은 여러 축제를 기획하다가 '우리의 축제는 건강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지난해 4월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페스티벌 '지구사이'를 열었다.

홍보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쓰레기통을 활용한 투표함 '위컵(wecup)'과 조강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등 이색적인 환경 캠페인을 축제로 만들었다. 판은 '지구사이'처럼 지역의 사회문제를 자신들만의 형식으로 재미있고 흥미롭게 풀어 가는 일을 하고 있다.

글 안선희 사진 협동조합 판 제공



무한청춘페스티벌 '약사랜드' 공연 모습



협동조합 판 오석조 대표(왼쪽에서 여섯번째)와 직원들

문화인력 양성이 주요 업무

판의 이전 명칭은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이었다. 문화예술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키우는 역할을 판의 중요한 업무로 여겼다. 2016년 판을 벌인 이후 줄곧 축제학교 등을 열며 문화인력 육성에 집중했다. 하지만 ‘인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 때문에 판을 단순한 인력소개소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획업무보다는 스태프 업무가 더 집중되는 것 같아 고민하다 4월 회사 명칭에서 ‘문화인력양성소’라는 문구를 뺐다.

주지육림 페스티벌로 판 기획력 알려

오석조 대표(33)가 2016년 2월 판을 열었을 때 직원은 단 두 명이었고, 아트씨어터 무하의 사무실에서 책상을 하나 빌려 사무실로 썼다. 지금은 여덟 명이 운교동 3층 사무실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판은 2016년 기획했던 ‘주지육림’ 프로젝트를 판의 성장 원동력으로 꼽는다. 10개월간 진행된 주지육림은 육림고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판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판의 축제 기획력이 알려졌고, 이어서 축제 기획 요청이 들어 오기 시작했다.

콘텐츠로 승부수 던진 들깨 페스티벌

2017년 기획한 ‘들깨 페스티벌’은 판에게 콘텐츠로 승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화천 내려안 들깨밭에서 열린 축제인 만큼 강원도보다는 서울 등 도시 사람들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았다. 비닐하우스 캠핑과 들깨밭, 들깨창고 등에서 열린 음악공연, 독립영화 상영, 캠핑 파티 등으로 채워진 들깨 페스티벌은 판의 기획력이 빛났던 행사다.

하나둘 차곡차곡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판은 2018년 평창동계올

림픽 기간 강릉에서 ‘사회적경제 상품관’을 운영하며 규모를 키웠다.

사회적 메시지 담은 페스티벌 기획

판은 매년 50개 정도의 행사를 만들고 기획한다. 그중 48개 정도는 돈을 벌기 위한 일이다. 의뢰받은 페스티벌이나 행사를 기획한다. 직원들의 감정이 소모되지만, 그런 행사를 통해 판의 기획력을 키우고 내실을 다진다. 나머지 2개 정도는 판이 만들고 싶어서 하는 행사다.

‘지구사이’나 ‘퇴사종용’ 페스티벌 등이 스스로 즐기기 위해 만든 페스티벌이다. 지구사이가 환경을 생각하고 만든 페스티벌이라면 퇴사종용은 문화기획자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기획으로 풀 것이다. 퇴사를 꿈꾸는 이유, 적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 퇴사하고 싶어도 퇴사하지 못하는 이유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냈다.

내부 결속 다지며 상반기 보내

올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쉬어 가는 분위기다.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는 속담처럼, 홈페이지 리뉴얼에 들어갔고 취업규칙을 재정비하는 등 판의 내부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7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10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쉬워 보이진 않는다.

문화예술 단체 롤모델 되고파

오석조 대표는 “춘천 문화예술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 비정규직 일만 주니까 서울과 경기 등 넓은 지역으로 이동한다. 사람이 없으니 또 서울에서 데려오고, 그런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판이 아주 잘 나가서 젊은 층이 춘천을 떠나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춘천일기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진행한 '우리동네 그림지도' 프로젝트의 결과물

춘천을 닮다 춘천을 담다

육림고개에 춘천의 감성이 그대로 담겨있는 로컬 상점이 있다. 언덕 중간에 있는 '춘천일기'다. 1층은 춘천을 상징하는 다양한 제품이 아기자기하게 전시돼 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2층에 오르면 여행과 관련된 책이나 춘천 등 지역 관련 도서가 예쁘게 놓여 시선을 끈다. 춘천 육림고개를 찾는 많은 여행자가 자주 들르는 곳이다.

글 안선희 사진 안선희 춘천일기 제공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상점

이곳은 한때 ‘울산기름집’이었다. 가게가 문을 닫고 비어 있다가 춘천일기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 문을 열었다. 가게 안쪽은 동굴 같은 모습이다. 콘크리트 벽에 커다란 돌덩이가 울퉁불퉁 보이기도 한다. 리모델링 할 때 곰팡이를 제거하고 내부를 거의 그대로 살렸는데, 오히려 춘천일기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되고 있다.

벽이나 작은 테이블 위로 오밀조밀 작은 소품들이 가득하다. 춘천일기는 잡화점이나 편집숍, 책방, 소품가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주인장 최정혜 씨는 로컬 상점이라는 말을 가장 아낀다. 춘천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을 통해 상점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이다.

동네작가 발굴... 동네 가게와 매칭도

춘천일기의 동네작가 1호 김은영 씨는 로컬 상점의 대표적인 사례다. 본업이 따로 있지만, 취미로 드로잉을 한다. 춘천일기의 단골손님이었다가 직접 그린 엽서를 춘천일기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 김은영 씨는 춘천일기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진행한 ‘우리동네 그림지도’를 만들 때 지역 작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동네 그림지도’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이다. 춘천일기는 약사명동에 살고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을 모아 매주 2회씩 작가들과 동네를 산책하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여행자 지도를 만들었다. 동네 아이들이 그린 지도를 따라 약사천과 죽림동 성당, 망대 등을 찾아가 본 여행객들은 전에 느껴던 것과 사뭇 다른 감성에 빠져들게 된다.

‘동네작공 프로젝트’도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결과물은 다른 사업이다. 미용실과 빵집 등 동네 가게에 조각가와 디자이너 등을 매칭해 로고와 윤리적 포장 디자인, 조형물 등을 제작했다. 2018년 8월 춘천일기가 문을 열고 12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로컬디자인포럼을 개최한 후 꾸준히 지역 예술가와의 접점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엽서·달력 등 춘천 알릴 기념품 개발 중”

그래서 춘천일기에 가면 지역 출신 작가들의 독특한 채취가 담긴 다양한 디자인이 엽서와 와펜, 캘린더, 자석세트, 가방, 열



춘천일기 최정혜 대표



쇠고리 등이 눈길을 땔 수 없게 만든다. 최 대표는 “처음 춘천에 왔을 때 춘천을 대표하는 기념품이 너무 없어 놀랐다”며 “춘천일기에서 직접 제작한 ‘I ♥ ㅊㅊ’ 굿즈 등을 포함해 지역 작가들이 참여해 제작한 1,000종의 소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일기는 춘천을 새롭게 만나는 곳이다. 여행자에게는 추억을 선사하고, 춘천 사람들에게는 춘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춘천을 다른 방법으로 알고 사랑하게 한다. 춘천의 새로운 기억이 춘천일기에 새록새록 쌓이고 있다. 📖



토종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동면 월곡리 231번지. 그곳에 가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작물이 자라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다. 모두가 편한 것, 돈 되는 것만을 좇을 때 묵묵히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우리 것을 지키는 사람들. 춘천 토종씨앗 농장을 함께 가꾸는 토박이공동체를 만났다.

글 김선순

‘토박이공동체농장’이 있는 동면 월곡리 231번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니 옥광산 바로 밑이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개울을 따라 조금 걸어가니 아름드리 나무 사이로 모종을 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춘천을 대표할 수 있는 토종작물을 발굴하고 정착되도록 공동체농장을 운영하는 ‘토박이공동체’다.

토종씨앗 수집

토박이공동체 우종석 대표는 샘밭에서 들깨와 참깨 농사를 하

는 농부다.

“강원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도시농업 교육을 받던 10여 명이 의기투합해서 토박이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토종작물 재배에 관심이 많은 이재철 씨가 사업실행계획서를 만들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응모했지요. 시에서 받은 지원금은 200만 원입니다.”

토박이공동체농장은 1,000평 규모다. 월곡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안래훈 씨가 농장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다.

토박이공동체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토종씨앗을 수집하는 일이다. 토종씨앗 현황 파악, 수집·관리 방법 연구, 대중화가 상반기 목표다. 하반기에는 지역 농가를 방문해서 토종씨앗의 이름, 내력, 수집경로, 재배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토종씨앗 목록을 만들 예정이다.

“토종씨앗에는 우리 조상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일제 강점기에 수천만 종이던 우리 토종씨앗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외국에 로열티를 주고 씨앗을 사오죠. 돈도 돈이지만 유전자 조작이 더 문제입니다. 식물에 동물의 유전자도 넣어요. 이런 식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 종묘상에서 파는 잡종 씨앗은 한 해밖에 안 갑니다. 2대부터는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지요. 유전자 조작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또 종자를 팔 수 있거든요.”

서늘한 얘기였다.

춘천 대표할 토종작물 찾는다

현재 토박이공동체농장에 심어진 작물은 검은찰옥수수다. 검은찰옥수수는 크기는 작지만 맛이 뛰어난 토종옥수수다. 옥수수 수확이 끝나면 같은 자리에 귀족서리태를 심을 예정이다. 귀족서리태는 크기가 매우 커서 귀족이라는 이름이 붙은 토종콩이다. 춘천에서는 흔치 않은 이모작에 도전하고 있다.

“옥수수를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미로처럼 심었습니다. 옥수

수를 수확하러 온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일부러 미로로 만들었어요. 기존의 주말농장과 차별을 두었어요. 단순히 농작물 수확이 목적이려면 오래가지 못해요. 텃밭 가꾸는 재미로 몇 번 오다곤 흥미를 잃고 말죠.”

토박이공동체는 단순히 수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판매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체 회원 이재철 씨는 춘천이 근교농업을 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얘기한다. 시내에서 20분이면 어디든 논밭이 있는 곳이 춘천이다. 혼자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공동체와 함께라면 희망이 있다고 확신한다.

“젊은 친구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일거리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두세 명 이상이 함께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이곳이 젊은 친구들에게 베이스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고 원하는 작물을 판매하는 거죠. 조금 비싸도 가치가 있기에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토종작물 재배법 기록 홍보

토박이공동체는 화분이든 텃밭이든 좋으니 한 가정에 토종씨앗 하나씩이라도 심기를 바란다. 또 학교마다 토종텃밭을 가꾸어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직접 학교로 강의도 나간다. 더 많은 사람이 토종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인 농부의 시장 같은 곳에 나가 씨앗도 나눠주고 농작물 판매도 한다.

토종작물 재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매일 일지도 쓰고 있다. 일지를 정리해 토종작물 재배법에 관한 홍보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이다.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랄기 때문이다.

월곡리 231번지. 그곳에 가면 희망을 싹 틔우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군인으로 오랜 기간 복무하다 사회에 나오면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40~50대에 전역한 제대군인은 사회 적응은 물론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느낀다. 일반 사회와 분리된 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 머물렀던 경험이 오히려 취업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 등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곳이다. 강원센터는 2019년 7월 춘천 근화동에 개소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았다.

글 안선희 사진 안선희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제공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조애경 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직원들



지난 5월에 열린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1. 박영선(53)씨는 2017년 3월 27년간 복무한 후 전역했다. 전역 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을 수차례 받고 그해 8월 강원도청 민관군협력관으로 취업,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 안중근(57)씨는 34년간 복무 후 2017년 3월 전역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굴삭기, 지게차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았다.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을 받은 후 2017년 12월 홍천 대명콘도에 취업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홈페이지서 회원 가입이 우선

춘천은 물론이고 강원도에는 군부대가 많다. 제대군인 거주 비율 또한 높다. 오랜 기간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그동안은 서울센터에서 원거리 행정으로 지원을 받다가 지난해 하반기 센터가 개소했다.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는 교육행정팀, 취업상담팀, 그리고 기업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애경 소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강원센터는 현재 제대군인 5,100여 명에게 전직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전역을 앞두고 있거나 전역 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문교육과정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도 지원

회원 가입을 하면 우선 1:1 상담사를 배정, 자기분석 및 개인별 컨설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낸다. 군인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전역하면 연금 대상자가 된다. 센터에서는 연금 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월 25만~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전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직을 원하는 경우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현재 강원센터에서는 명품조경기능사와 전기기능사 두 가지 전문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교육비(최대 150만원)도 지원해 준다.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 중앙로 172 삼성타워 6층
☎ 1666-9279 / 070-4277-6683
🌐 www.vnet.go.kr



도내 일자리 발굴 제대군인 역량 홍보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았다면 다음 단계는 구직을 위한 실행 단계다. 강원센터는 춘천 180개 기업을 포함해 도내 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대군인의 능력을 홍보하면서 채용 계획 등을 점검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제대군인의 경우 시설 관리나 보안 경비 분야, 학교 보안관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다.

취업을 위한 마지막 단계, 이력서와 면접 등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및 협상 기술 교육 등 구직 준비와 실행에도 꼼꼼하게 챙겨준다. 또 새로운 직장 및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연수원을 운영, 자기계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젊은 층 강원도 정착에 도움 되길”

강원센터는 분기별로 도내 시·군에서 순회상담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조애경 소장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교육이 미뤄지는 등 지원 생활이 좀 주춤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제대 후 서울로 가는 젊은 층이 많은데, 도내에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 그분들이 춘천 등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소식

제29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춘천시의회(의장 이원규)는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건,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였다.

- 춘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춘천 유치 동의안 : 가결
-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 가결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하여



이희자 의원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위해 춘천시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응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춘천시가 진행한 4월분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정책을 6월까지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용과 가정용으로 확대하여 50% 감면하고 감면 사유를 고지서에 표시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의회는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한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4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의 상인들은 감면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기준에서 즉각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춘천시의 응원 방법이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 감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정부의 감면 정책은 개인들이 받는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시민과 시 정부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각오를 다지는 일이며, 춘천시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성이 전달되는 효과가 있고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김진호 의원

춘천시정부는 이번 제29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8개 분야, 45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농업경영인들을 위한 예산안은 빠져 있습니다. 농업인도 소상공인처럼 작은 기업으로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연이은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의 농산물 납품이 지연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농민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이나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사무실 꽃

생활화사업 등의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 지원 대책을 춘천시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면 예산 편성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사태의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그리고 그 어떤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춘천시정부의 노력이 있길 기대하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경영안정 지원금 예산 편성’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약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공영제의 필요성



김은석 의원

시내버스 문제는 도시 문제와 연관된 핵심 해결과제입니다.

50년간 춘천시내버스를 책임졌던 대동대한운수의 파산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과 완전공영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단계적 공영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공영제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며, 춘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제 버스공영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민공감대 형성을 기본으로 단계적 공영제 이행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춘천시민버스의 경영난이 춘천시민들과 노동자의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의 측면과 근본적인 춘천시내버스 경영체제를 대체할 공영제 시행의 공론화, 이행절차, 경영방식 등을 촘촘히 검증하고 준비하는 투트랙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현재의 노선 개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상교통수준의 교통약자 정책을 전제로 한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2020.4.22.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채욱)는 간담회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등을 협의했다.

2020.4.20.~24.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정활동

2020.4.20.~24.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0.4.20.~24.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황환주)는 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0.4.27.~28.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호)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2020.5.6.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제30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2020.5.6.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제30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2020.5.6.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제30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봄내골 소식

함께해서 행복한 봄내골의 소식을 전합니다

장학금 성금·나눔후원

• **주식회사 삼경**(대표 김진웅)은 춘천시청을 방문해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에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 **주식회사 오성이엔씨**(대표 김남수)는 춘천시청을 방문해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에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 **주식회사 팜크로스**(대표 김대선)는 춘천시청을 방문해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에 기탁금 1,000만원과 5,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춘천시에 전달했다.



• **아리조나주 재미교포 이성호 씨**(아리조나 축구협회장)는 5월 6일 근화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달해달라며 120만원을 기탁했다. 근화동과 연고는 없으나 해마다 100달러씩을 후원하고 있다.

음식·잔치·물품후원

• **춘천 신성감리교회**(담임목사 박상철)는 4월 17일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영애)를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라면 50박스(15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 **신복읍 심우정사**(해광스님)에서는 4월 20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160만원 상당의 쌀 50포를 후원했다. 심우정사에서는 매년 2회 이상 지속적 쌀 후원을 하고 있다.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50여명의 장애인가정에 선물을 전달했다. 면역력 강화용품과 간단한 먹거리, 직원들의 롤링페이퍼를 담은 선물을 전달하며 휴관 기간 동안 못다 한 소통을 대신했다.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코로나 19 종료까지 노력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김희동)은 4월 21일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남면 거주 독거노인 40가구에 생선 통조림 2개, 달걀 한 판을 각각 전달하는 '행복나눔 반찬지원 푹푹떡!' 행사를 시행했다.



• **강남동 보타사 관음손봉사단**(단장 양영석)은 4월 22일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32가구에 반찬 3종류를 전달하고 지난 4월 13일 주택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침구류 등 전달했다.



• **동면사회복지봉사단**(단장 박근순)은 4월 23일 홀로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독거노인 등 관내 저소득층 40가구에 반찬 4종을 전달했다.



• **신북농업협동조합**(대표 김재호)은 4월 24일 코로나19로 힘든 읍내 저소득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쌀 34포를 지원하여 따뜻함을 선사했다.



• **신사우동 새마을부녀회**(부녀회장 이희순)는 4월 27일 건방 4박스를 관내 저소득 분들에게 전달했다.



• **동면사회복지재단**(단장 박근순)은 5월 6일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 등 홀몸 취약계층 35가구에 카네이션 및 과일을 포장하여 전달했다.



• **석사동 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길옥자), **석사동 자원봉사단**(단장 엄옥란), **서가네 칼국수**(대표 서민수)는 5월 7일 관내 독거노인 10명에게 칼국수와 떡, 과일 등을 대접했다. 행복동네 행복밥상 사업은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 **소양동 광명고물상**(대표 이동진)은 5월 7일 소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컵라면 130박스를 기탁했다.



• **효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강금옥)에서는 5월 7일 영양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10가구에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을 전달했다.



• **효자3동 춘천중앙안식일교회**(목사 이병천)에서는 5월 7일 관내의 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정성껏 직접 만든 반찬을 제공했다. 매월 1회 반찬제공을 하고 있다.

• **조운동 상인회**(회장 유일관 대표 이숙자, 이범례)는 5월 8일 직접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 및 나눔선물(도시락) 각 80개를 준비하여 지역에 계신 홀몸 어르신께 전달했다.



• **신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김덕만)는 5월 8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신사우동 특화사업인 '밀반찬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월 1회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가구에 지속적으로 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 **신사우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희순)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 100명께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 주변을 훈훈하게 했다.



봉사·청소·환경·정화

• **약사명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진태)는 4월 16일 춘천가꾸미사업의 일환으로 보문각 앞 공터에 조팝나무 200그루, 철쭉 200그루, 계절꽃 등을 식재했다.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연순)는 지역주민 및 단체회원 100여명과 함께 4월 16일, '우리동네 시민꽃정원사업'으로 화분 300개에 계절꽃 5,000본을 식재하여 참여자의 대문앞과 골목에 꽃정원을 조성했다.



•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종수)는 4월 21일 삼천동의 화재 가구를 방문하여 독거 어르신을 위로하고, 청소와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미, 가타리나 수녀) 직원 20여명은 5월 7일 고물과 쓰레기를 모으고 방치해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남산면 백양1리의 홀몸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집 안에 수년간 쌓여 있던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실내외 청소 봉사활동을 했다.

행사·캠페인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미)은 4월 24일 춘천시내 장애인들의 위생 청결관리를 위해 이동 목욕서비스를 시작했다. 방문 목욕은 등록장애인에게 주 1~3회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사회서비스팀 262-0152

• **춘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원봉)는 4월 28일 분기별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 우수 자원봉사자 김순분, 노영선, 백미경
우수 자원봉사단체 2군수지원여단 구룡봉사단(대표 이수복), 새벽을 여는 사람들(대표 박훈주), (사)에너지와 여성 춘천시지회(대표 김경희)

알림마당

춘천시민에게 유용한 교육, 복지, 행사 정보를 전합니다

한눈에 보는 춘천시 통계

가구 
124,032세대 + 174

인구 
285,374명 - 314

출생아 135명 
(2020년 누적출생아 548명)

65세 이상
48,794명 + 207

자동차 
135,520대 + 245
(전기자동차 589대 포함)

2020년 4월 말 기준 (+, - 는 전월 기준 변동수치임)

강습 · 교육

■ 동산면

모집기간 6.1.~6.5. / 관외 주민 6.8.~6.9.
운영기간 7.1.(수)~9.30.(수) 3개월 간
모집원칙 주민등록상 동산면 주민 우선 선발 / 선착순 모집
문의 ☎ 250-3603

※ 50% 감면(만 65세 이상),
100% 감면(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모 · 부자 가정)

프로그램	인원	운영일정	수강료	개강일
웃음치료	20	화. 목 13:00~15:00	45,000	7.2.(목)
노래교실	20	월. 수 10:00~12:00	45,000	7.1.(수)

프로그램 및 강의시간은 자치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춘천시민 정보화교육

대상 춘천시민(무료), 과정별 12명
교육기간 생활 속 디지털 영상 편집 7.6.(월)~7.10.(금)
스마트폰 앱 실생활 활용 7.13.(월)~7.17.(금)
모바일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7.20.(월)~7.24.(금)
스마트폰 사진 및 동영상 편집 8.10.(월)~8.14.(금)
인터넷세상 8.17.(월)~8.21.(금)
스마트폰 앱 실생활 활용 8.24.(월)~8.28.(금)
교육장소 춘천시청 별관 본관동 3층 정보화교육장(옛 춘여고)
전화접수 7.1.(수) 정보통신과 ☎ 250-3509 선착순 접수
* 접수인원 초과 시 동일과정 수강이력 없으신 분 우선접수

※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 강화 시 즉시 교육 중단

모집 · 신청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모집

운영 5~12월
장소 신청기관 및 온라인
대상 학교 및 기관, 청소년 및 학부모(무료)
내용 - 찾아가는 예방교육(1회기: 50분)
- 온라인 예방교육(센터 홈페이지: 20분)
※ 교육 시청 후 댓글이벤트 참여자 추첨하여 상품 증정
- 고위험군 집중교육(4회기)
신청 <http://www.alcoholfree.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문의 춘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255-3482

■ 산모신생아건강돌보미 양성교육

교육기간 6.15~6.26(월~금) 9시~18시
교육장소 춘천YWCA 2층 강의실
접수기간 ~6.5(17시)
수강료 국비지원(만50세이상 대상)
교육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론 및 실기
제출서류 교육신청서, 구직신청서, 신분증사본, 반명함사진1매
접수방법 방문접수
모집인원 20명(선발)
문의 춘천YWCA ☎ 254-4878

■ 옛 김유정역 야외결혼식장 작은 결혼식 참여자 모집

접수기간 2~10월
모집인원 일반 4커플(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문의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 033-250-3108)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1. 6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대상	정보화 과정(동영상 만들기, 한글2018기초, ITQ한 글&엑셀 자격증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반 등), 캘리그라피 기초반/자격증반, 방과후도탈공예지도사, 생활용 양말목공예 자격증반, 교육기능성 보드게임지도사 2급, 생활한복 만들기, 밑반찬 만들기, 쿠키&빵 만들기 등
홈페이지	www.ccwomen.or.kr
수강료	별도 문의(과정별 상이)
재료비	별도 문의(과정별 상이)
신청	전화, 방문, 인터넷
문의	☎243-6474

2.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실무향상,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 취득(실기),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등
수강료	별도 문의(과정별 상이)
신청	전화, 방문, 인터넷
문의	☎243-6474

3. 2020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안내

대상	새일센터 구직여성, 구직준비단계여성, 재취업여성, 재직여성, 기업
무료지원	여성고용유지지원 / 직장문화개선 지원 / 경력단절 예방 협력망 구축 /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신청서	www.ccwomen.or.kr 공지사항 및 자료실 다운로드
문의	☎243-6474

■ 조운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접수	5. 1. ~ 6. 19.
모집인원	30명 내외 * 조운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대상자격	-조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조운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조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직원 -기본교육과정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 필요 ※ PC 또는 모바일(핸드폰)로 시 홈페이지 '봄의 대화' 로그인 후 온라인 교육(참여예산, 주민자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별도 교육공간 마련, 온라인 교육 가능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admzzang@korea.kr
문의	☎245-5587, 250-3613

■ 2020년 강원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기관 & 참여자 모집

사업내용	생계보다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3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70세 미만인 퇴직전문인력(*20년 기준 1950년~1970년 출생자 해당)
참여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
지원내용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 지원
모집	연중 수시
문의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256-8829

■ 2020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대상	만 18~69세 미취업 청장년 및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내용	직업상담 - 직업능력개발 - 취업알선까지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지원 1단계 직업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최대 20만~25만원 지원 2단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최대 300만~500만원,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3단계 취업 알선 /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지원(1유형 장년층 해당)
비용	무료
모집	연중 수시(위탁기관 신청 가능)
문의	퍼스트인잡(주) 춘천사무소 ☎818-2486

■ 2020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n개의 사전' - "나를 찾아 떠나는 전설 여행" 참여자 모집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참가비 무료), 간식 제공
교육내용	예술에 대한 물음을 경험하는 교육 프로그램 연극, 인형극 현장 탐방/ 청평사 탐방 연극, 인형극 공연 발표회
교육일정	매주 토요일 10시~ 13시(11월 30일까지)
사업장소	춘천공연예술연습공간A동 2층(옛 춘여고 자리)
문의	☎010-5371-7106

건강·복지

■ 마음건강교육 『말 안 하면 몰라요』

주제	[우울증] 코로나블루(BLUE: 우울한)
일시	6.15. 14:00~15:30
장소	춘천시민복지회관 4층 보건교육실
신청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신청 (40명 선착순 마감)
문의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44-7574

■ <치매바로알기> 교육 대상자 모집

일시	6.25(목) 10:00 ~ 11:30
장소	치매안심센터 지하 1층 교육실 (춘천시 스무썬길 4-46)
내용	치매란, 예방 및 관리방법 등
신청	사전 및 현장 접수
문의	치매안심센터 ☎250-4450

■ 수중운동서비스 모집 안내

모집기간	68(월)~19(금)
서비스	수중운동, 아쿠아로빅(월 8회 회당 120분)
일정	매주 화,수,목,금(요일선택) 오전 10:30 , 오후 13:30 , 14:30(시간선택가능)
장소	국민생활관 수영장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제공계획	분기별 체지방 검사 및 유연성, 건강상태 검사로 수시 건강진단
제출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진단서 제출 필요
접수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241-1755, ☎010-4003-7724

■ 초발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중 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지원범위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제출서류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⑤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 증, 차상위 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은 춘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비스→의료비지원→정신질환자) 참조
문의	춘천시보건소 ☎250-3564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무료 방문상담

대상	본인, 가족, 사회복지업무종사자, 교사, 상담사 등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블루 등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관련 무료 방문 상담
상담횟수	총 8회(방문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신청	전화 또는 온라인신청 www.iapc.or.kr 가능
문의	강원스마트쉼센터 ☎249-3078

■ 춘천스마일센터 통합지원 안내

춘천스마일센터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범죄피해 심리치료 전문기관
입니다.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세요.
모든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심리치료 및 평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법률 상담, 임시거주시설(생활관) 등
이용시간	매주 월~금 09:00~18:00까지 (전화예약 후 내방 가능)
이용방법	전화, 유관기관 의뢰,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 등
장소	춘천시 거두리 소재(자세한 위치는 예약 시 안내)
연락처	☎255-1295 / ccsmile1295@naver.com
홈페이지	resmile.or.kr

행정·기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세제 부담 을 덜어주고자 춘천시 시세를 감면합니다

감면내용	주민세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자동차세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 (택시, 화물) 자동차세 100% 감면
재산세	소상공인·유형학업종 제외에게 2020년에 임대료 를 인하한 건축물(임대면적)에 대하여 인하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를 50만원까지 감면
추진방법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직권감면(6월, 8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의 재산세 신청에 의한 감면(7월) - 신청기한 : 2020. 6. 5일한 - 접수처 : 세정과(방문, FAX,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시홈페이지(하단)-부서별(세정 과)-자료실(민원서식)/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확약서,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문의	자동차세·주민세(균등분) ☎250-3293 재산세 ☎250-3659

■ 2020년도 1기분(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납부기간 6.16.~6.30. ※ 과세기간 : 1.1.~6.30.(6개월)
문의 춘천시 세정과 ☎250-3293, 4066, 3633

■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0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결정·공시일 5.29.

결정·공시 필지수 239,116필지

이의신청 방법

가. 기간: 2020.5.29. ~ 6.29.

나. 내용: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 요지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기재
 다. 이의신청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방법: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이의신청 요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가. 처리기간 : 2020.6.30. ~ 7.24.

나.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지과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후,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의 ☎250-3801, 3812, 3814, 3816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대상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장소 춘천시청 민원실(1층, 전문가 무료상담실)

기간 이의신청 기간

대면상담 이의신청 기간 중 5일, 10:00~17:00

– 6.1.(월) : 동내면, 동산면, 북산면
 – 6.5.(금) : 석사동, 송암동, 칠전동, 신동, 중도동, 신동면, 남산면(수동리, 창촌리, 방곡리, 서천리, 백양리)
 – 6.12.(금) : 소양로1가~4가, 근화동, 후평동, 우두동, 사농동, 동면
 – 6.19.(금) : 온의동, 교동, 퇴계동, 삼천동, 남면, 남산면(광관리, 행촌리, 강촌리, 방하리, 산수리)
 – 6.26.(금) : 봉의동, 요선동, 낙원동, 중앙로1~3가, 옥천동, 조양동, 죽림동, 운교동, 약사동, 효자동, 신북읍, 서면, 사북면

유선상담 유선을 통한 상담 요청시 감정평가사와 전화 연결(이의신청 기간 중)

문의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250-3801, 3812, 3814

■ 소양도서관 리모델링 휴관 안내

기간 6.8.~9.17.(예정)

사유 리모델링 실시

내용 DVD 영상자료실 및 시청각실 개선(영화특화)

문의 245-5145~6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복지 서비스'이용 안내

대상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 등 보호대상자 및 보호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 등 직계가족

※ 보호대상자: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사업법

지원내용 – 생활 지원(숙식 제공, 생계비 지원)

– 취업 지원(직업 훈련,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가족 지원(자녀 학업 지원, 합동결혼식)

– 상담 지원(심리 상담, 사회성 향상 교육)

방문상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254-8821, 8827

■ 아동 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가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 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 줍니다!

아동 청소년의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가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독자와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

이아름 효자동

코로나19 확진자가 드디어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 황금연휴 동안 답답한 마음에 가까운 화목원으로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봄날, 날씨도 좋았고 그동안 집 안 생활을 오래했던 탓인가 가족들 연인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답답한 마음에 저처럼 외출을 나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부터 턱에 걸친 분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 하는 씁쓸한 마음에 순간 코로나19가 되살아 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고생하신 의료진,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분들의 노고가 물거품이 될까 봐 말이죠. 또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답답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예절을 잘 지켜서 빨리 이 사태가 가라앉기를 바랄 뿐입니다.



봄내퀴즈

1. 청년의 문제를 청년이 직접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춘천 시정부의 지원으로 만든 자치기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6037명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6037장의 마스크를 마련하는 운동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 서부시장을 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사창개개의 위쪽 언덕에 구멍을 내 만든 터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봄내 퀴즈의 답과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매월 10일까지 봄내편집실 이메일(bomnae1993@daum.net)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10분에게는 춘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5월호(352호) 봄내 퀴즈 당첨자는 원종혁, 박하나, 김태경, 손지우, 용정아, 박은경, 김효정, 이천재, 황유나, 김예림 님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 정착되길

연제열 후평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한 지도 8개월여를 지났다. 봄내 소식을 읽으며 춘천의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어 매달 기다려지는 소식지다.

매일 일찍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새로 분양되어 입주하는 아파트에는 전기자동차 전기 충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소수의 입주민들 때문에 충전시설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이용 못 하는 것을 보아 왔다. 전기차 번호판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충전시설 공간에는 하얀색

번호판을 단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분명히 주차하면 안 되는 공간인 줄 알면서도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차하고 연락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또한 주차 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나의 집이 가깝고 멀리 주차하면 불편함이 따른다는 이유로 커브 공간에 양쪽 이중으로 주차하는 사람들도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한 번 더 생각하였으면 한다.

<봄내>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봄내 소식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자 합니다. 소식지를 읽고 난 후의 소감이나 춘천시에 바라는 점, 소개하고 싶은 춘천의 명소, 함께 벌이고 싶은 캠페인 등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사연이 실리는 독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편집 사정에 따라 내용을 줄이거나 표현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우편 24264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내 봄내편집실 이메일 bomnae1993@daum.net

✉ 새들의 질서

황장진 효자동

동이 트면 강원대학교 교정에서 떼를 지어 새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장관을 즐기게 된다. 먹이 찾아 남녘 어디론가 가는 모양이다. 인간 세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나들이를 자제하고 있는데, 새들은 하늘을 맘껏 날고 있다.

새들은 어떻게 저리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들은 360~320°의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 떼를 지어 날더라도 부딪히지 않는다고 한다. 철새들이 ㄱ나 V자로 나는 이유는 맨 앞에 있는 새가 제일 힘이 센데, 날아가면서 뒤에 있는 새들이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맨 앞자리는 수시로 바꾸는 것 같다. 힘에 부치기 때문일까? 서로 돕는 것이다.

사람보다 지능이 낮은 새들도 저리 질서를 잘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지능이 훨씬 높은 인간사회에서야 마음 먹기 나름이 아닐런지?

✉ 꽃향기 나는 춘천

박이희 동면

지난 일요일, 날씨도 좋고 공기도 너무 맑아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였다. 가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지천 인근을 산책하기로 하였다.

공지천 조각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꽃정원이 눈에 들어오며 우리 가족은 서로 간 웃음을 지었다. 꽃은 사람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마법 같은 향기가 있음이 느껴졌다. 꽃의 아름다움을 한창 느끼며 꽃정원을 꾸민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느껴졌다.

봄내 소식지를 보며 '가가호호 꽃정원 만들기', 도심 전체 꽃정원 사업을 춘천시에서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새삼 아름다운 춘천, 향기 나는 춘천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꽃 정원 사업, 향기 나는 춘천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인상적인 한지붕 다섯가족

봄내 소식지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독자로서 어떤 책보다 재미있고 많은 정보도 있고 또한 지혜도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소식지라 매달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불 때마다 봄내 소식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해봅니다. 5월호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기사는 30페이지에 있는 한 지붕 다섯 가족이었습니다. 이웃으로 만나 가족이 된 사연이 신기하기도 부럽기도 했고 따뜻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처럼 핵가족화된 사회에 멋진 경종을 울린 사연입니다. 아이들도 더불어 자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흐뭇해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김영미 퇴계동

✉ 봄내 5월호를 읽고

바깥 동네에서 보는 '봄내' 속의 아기자기한 기사를 보면서 먼저 애정과 찬사를 보냅니다. 다른 매체에선 찾아볼 수 없는 '김길소의 그때 그 사건'과 '최돈선의 골목 이야기' 그리고 '그 옛날 춘천'은 춘천의 어제를 오늘에 되살려 보는 의미 깊은 사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한 복고의 성격을 초월하여 춘천의 역사를 되짚어 가며 진취적으로 변영해 나아갈 내일의 지향점을 진지하게 모색해 볼 수 있는 뜻 있는 아카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춘천지역의 성화와 전설 및 유적도 곁들여 인문학적인 형태를 골골살살 배려하여 흥미롭게 지면을 장식하여 나아가는 기획을 설렘 속에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재섭 서울시 중랑구

6.6 현충일

호국보훈의달

제 65회 현충일을 맞아 시민 자율분향소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현충일 추념식은 축소 진행합니다

고령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제 65회 현충일 추념 행사를 축소 진행합니다.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청광장에 자율분향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헌화와 분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자율분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천막을 설치하고 국화를 준비하여 참배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현충일 추념행사를 축소 운영하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율분향소 운영

장 소 | 춘천시청 광장

운영시간 | 6. 6.(토) 09:30 ~ 15:00

이용대상 | 전 시민